Entertainment p/03



장기하와 얼굴들 전국 투어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제3080호 www.metroseoul.co.kr

Life p/11



시선끄는 결혼식 하객 패션



LG 사이언스파크 기공식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열린 LG 사이언스파크 기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본무 LG회장 등과 함께 기공 발파 버튼을 누른 뒤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구 LG 회장,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련기사 17면> /연합뉴스

먹는 물시장 성장세 가파르다

생수 판매 허용 후 100여 브랜드 6000억원 규모로
탄산수 등 기능성에서 수입산 물까지 소비자 공략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먹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생수 판매 규제가 풀리고 기업들이 먹는 물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시장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일반 생수를 비롯해 빙하수·탄산수·화산암반수·알칼리수 등 깨끗함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물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100여개 업체 각축전

한국샘물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수브랜드는 모두 100여개에 달한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AC닐슨에 따르면 국내 생수 시장은 2009년 총 3370억원에서 2011년 440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5430억원으로 신장했고 올해는 60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5년만에 78%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내 생수 판매량은 총 345만 톤에 달했다.

생수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경향에 대해 업계는 소비자들이 웰빙이나 다이어트, 미용 등의 건강 트렌드에 맞춰 먹는 물까지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국내 먹는물 시장의 판세는 광동제약의 제주삼다수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삼다수는 여타 업체의 경쟁을 따돌리고 시장점유율 42.5%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해태음료의 강원평창수가 6.3%, 농심의 백두산 백산수가 5.1%를 점유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와 아이시스 8.0이 각각 4.8%, 하이트진로의 석수가 2.2%로 상위 6개 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5개 업체 6개 제품이 전체 국내 생수시장의 64.9%를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생수업체 자존심 싸움 치열

국내 생수업체들은 취수원 전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팔도는 지리산을 그대로 담은 생수 브랜드 '지리산 맑은샘'을 6년 만에 새롭게 리뉴얼해 출시했다. 반면에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취수원으로 한 농심(백산수)·롯데칠성음료(백두산 하늘샘)와 한라산 물을 활용한 광동제약(제주삼다수) 등이 삼대산맥을 중심으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하이트진로음료(석수)와 풀무원(풀무원샘물) 등의 식품업체도 생수시장에 뛰어들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양유업은 '천연수'를 올해 상반기 리뉴얼했다.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물론 CU·GS25 등 편의점도 PB 생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등 국내 순수 생수시장은 점입가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진하는 탄산수·수입생수

이런 가운데 국내 탄산수와 수입생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최근 집계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생수 중 탄산수의 매출은 전년보다 75.6%, 수입생수는 두배가량(92.8%) 늘었다.

지난 8월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수입생수는 올해 6월까지 프랑스 중심의 유럽산 제품 일색에서 2013년부터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늘면서 전체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의 급증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정점을 찍었던 2012년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먼저 탄산수는 올해 음료업계의 대표 히트 제품으로 꼽힌다.

국내 장수 음료 중 하나인 일화의 초정탄산수는 올해 1~8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유리병 패키지로만 출시되었던 프리미엄 탄산수 '디아망'의 페트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또 지난 5월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유기 게르마늄 성분을 함유한 생수 '카렐의 선물'을 출시해 틈새시장 공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홈플러스는 기존 수입 탄산수 동일 용량보다 30%에서 최대 80% 저렴한 폰테 알레그라를 연중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수입 프리미엄 생수들의 차별화도 눈에 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욀푸스 스프링' 지역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워터 '아이슬랜딕 글래시얼'을 선보였다.

태전그룹은 노르웨이 프리미엄 빙하수 '이즈브레'과 프리미엄급 알칼리수인 '시에나워터'를 잇따라 출시했다.

풀무원샘물은 지난 7월부터 국내 생수업계 최초로 '네슬레 퓨어 라이프' 생수 제품 라벨에 QR 코드를 부착해 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해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지하철 7호선 연장

2018년 인천 석남동까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연장하는 철도 건설공사가 30일 시작된다.

인천시는 30일 오후 3시 서구 석남동 공사현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은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운행되는 7호선을 서구 석남동까지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길이 4.165km의 철로와 정거장 2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총 4603억원이 투입되며 개통 시점은 2018년 12월이다.

시는 7호선 석남 연장선이 개통되면 인천지하철 1·2호선과 환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석남동에서 서울 강남구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현재 1시간 4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약 30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철도교통망 확충으로 부평구 산곡동, 서구 석남동 일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찾으며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이 주의 선택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인생을 말하는 빛나는 순간

■보이후드

12년의 시간 담아낸 경이로운 영화

우리는 왜 영화를 볼까. 대부분은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영화는 오히려 현실을 최대한 꾸밈없이 담아냄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23일 개봉한 '보이후드'가 바로 그런 영화다.

줄거리는 평범하다. 영화는 엄마 올리비아(패트리샤 아퀘트)와 누나 사만다(로렐라이 링클레이터)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섯 살 소년 메이슨 주니어(엘라 콜트레인)의 12년 동안의 성장담을 그리고 있다. 메이슨은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려는 엄마로 인해 정든 집을 떠나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간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간다.

'보이후드'가 특별한 것은 이 평범한 성장담을 위해 실제 12년 동안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그리고 싶었던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변화"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 실제 여섯 살 소년을 캐스팅해 12년 동안 영화를 촬영했다. 감독의 뜻에 동의하며 모인 배우와 스태프들은 2002년부터 매년 3~4일 동안 약 15분 정도의 분량을 촬영하며 영화를 만들어나갔다.

그래서 '보이후드'의 이야기는 평범할지언정 '보이후드'를 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한 소년이 12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지켜보게 된다. 키가 자라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목소리까지 바뀌어 가는 메이슨의 성장은 그 자체로도 경이롭다. 해리포터에 열광하던 소년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으로 변해가는 모습 또한 관객들로 하여금 잊고 지냈던 유년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탄생 등 미국 사회의 변화를 담은 흔적들도 눈에 띈다. 콜드플레이를 시작으로 뱀파이어 위크엔드, 윌코, 아케이드 파이어 등 미국 대중문화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러나 '보이후드'는 한 소년의 성장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12년의 시간을 견뎌내며 담은 이 영화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열여덟이 돼도 인생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 소년의 성장담을 통해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메이슨의 대사로 막을 내리는 아름다운 결말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 15세 이상 관람가.



이 주의 개봉작



나를 찾아줘

장르: 스릴러
감독: 데이빗 핀처
출연: 벤 애플렉, 로자먼드 파이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완벽한 커플 닉과 에이미. 결혼 5주년 기념일 아침, 에이미가 흔적도 없이 실종된다. 경찰은 에이미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숨겨둔 편지와 함께 곳곳에서 드러나는 단서들로 남편 닉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다.

타임 투 러브

장르: 로맨틱 코미디
감독: 저스틴 리어든
출연: 크리스 에반스, 미셸 모나한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도 질색하는 사랑 불감증 작가 미(ME)는 자선 파티에서 사랑스러운 매력녀 허(HER)를 만난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허를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자선파티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미는 작가 특유의 허풍과 입담으로 자선계 유명인사로 떠오른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장르: 코미디
감독: 장진
출연: 조진웅, 김성균, 김영애, 윤진이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생이별한 뒤 30년 만에 극적 상봉에 성공한 상연과 하연 형제. 그러나 재회의 기쁨도 잠시, 30분 만에 엄마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다. 두 형제는 엄마를 봤다는 제보를 좇아 방방곡곡 전국 원정을 시작한다.

다이빙벨

장르: 다큐멘터리
감독: 이상호, 안해룡

2014년 4월16일, 476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다. 참사 사흘째, 팽목항에 도착한 이상호 기자는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현장의 진실을 목도한다. 그때 잠수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다이빙벨에 대해 알게 된다.

HOT SCREEN 주말 위시리스트

에로영화 감독의 뜨거운 진심

꿈과 열정 유쾌하게 풀어낸 '레드카펫'



"주변에서 '성인영화 여러 편 찍은 것은 경력이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서러운 일이 정말 많았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편견을 갖고 저를 보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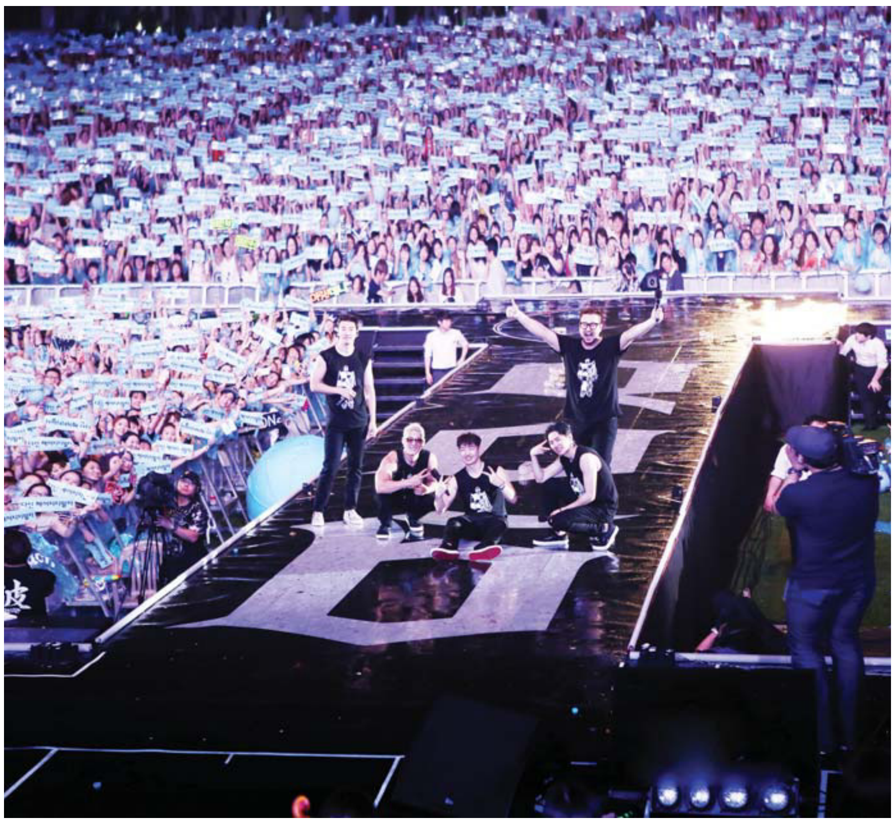
지난 16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레드카펫' 언론시사회에서 박범수 감독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그 눈물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다. 23일 개봉한 '레드카펫'은 그런 박범수 감독의 진심이 녹아있는 영화다.

'레드카펫'은 흔히 '에로영화'로 불리는 성인영화 감독으로 활동해 온 박범수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바탕이 된 작품이다. 언젠가는 꼭 자신만의 영화를 찍고 싶은 성인영화 전문 감독 정우(윤계상)가 과거 아역 스타였던 여배우 은수(고준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모두가 궁금해 하는, 그러나 선뜻 겉으로 꺼내 이야기하지 못하는 에로영화 현장을 무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레드카펫'은 섹시 코미디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최근 언론시사회에서 공개된 영화는 섹시 코미디와는 거리가 먼 작품이었다. 대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려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유쾌한 웃음과 감동으로 담았다.

박범수 감독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현한 에로영화 촬영 현장은 '레드카펫'이 마련한 볼거리 중 하나다. 윤계상, 고준희의 풋풋하면서도 달달한 로맨스, 오정세 특유의 유머감각, 그리고 조달환-황찬성의 콤비 연기 등 배우들의 연기도 적재적소에서 빛을 발한다.

'레드카펫'은 만듦새가 뛰어난 영화는 아니다. 로맨스와 코미디의 균형이 조금은 어색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레드카펫'에 담겨 있는 박범수 감독의 꿈을 향한 진심은 거부하기 힘들다. 언론시사회에서 윤계상은 "내가 본 박범수 감독은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다"며 "촬영하면서 감독님이 보여준 진정성과 영화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영화는 지난해 9월 이미 촬영을 마쳤다. 영화를 사랑하는 한 감독의 진심이 1년 동안의 긴 기다림 끝에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그룹 god의 데뷔 15주년 기념 콘서트 현장. /싸이더스 HQ 제공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정규 3집 '사람의 마음' 앨범 커버. /두루두루amc 제공

Top Stage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장기하와 얼굴들 전국 투어… '완전체' god 마지막 앙코르 공연

이번 주 공연가에서는 그동안 TV에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가수들의 콘서트가 열린다.

3년 4개월 만에 새 앨범 '사람의 마음'을 발표한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전국 투어 콘서트와 12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 god의 데뷔 15주년 기념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이 음악 팬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하와 얼굴들은 오는 23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대구·대전·전주·부산을 차례로 돌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연다.

서울 공연은 서울 롯데카드 아트센터 아트홀에서 총 8회가 개최된다.

이어 다음달 8일 대구 경북대학교 대강당, 16일 대전 우송예술회관, 22일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차례로 1회씩 공연한다. 마지막 공연지는 부산으로 오는 12월 6일 부산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에서 전국 투어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그간 장기하와 얼굴들은 음악 방송보다 라디오나 라이브 공연 위주로 활동해왔다. 최근에는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4' '장기하와 얼굴들&텔레비전-얼굴들과 손님들'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9-시티브레이크' 등 굵직한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번 전국 투어는 오랜만에 열리는 단독 콘서트다. 1집 '별일 없이 산다', 2집 '장기하와 얼굴들'의 히트곡과 함께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사람의 마음'과 선공개곡 '내 사람' 등 신곡들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god는 멤버 5명 전원이 다시 뭉친 '완전체' 활동을 마무리 하는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

25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 god는 22일 발표한 새 싱글 '바람'을 라이브로 선보인다.

신곡 '바람'은 god의 부드럽고 편안한 음색이 돋보이는 어쿠스틱 R&B 곡이다. 멤버 윤계상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가사에 담아 화제를 모았다.

앞서 god는 지난 7월 새 앨범 '챕터 8'을 발표 후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매회 전석 매진 행진을 이어갔다.

약 3시간가량 진행될 이번 공연에서 god는 '미운 오리 새끼' '하늘색 약속' '새터데이 나이트' 무대 이외에도 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스탠드 업' 등의 곡도 추가했다. 오프닝 무대도 새로 구성해 신선한 공연을 선사할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김수현 '서울의 얼굴' 된다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홍보대사 위촉

배우 김수현(사진)이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한다.

올해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도민준 열풍을 일으키며 한류 스타로 사랑 받고 있는 김수현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동대문 축제 개막식에서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서울시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김수현을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하게 돼 기쁘다"며 "서울시 문화관광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크리스티안 예르비의 앱솔루트 앙상블과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의 협연 공연도 열린다. 무대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재능 기부로 성사됐다.

이밖에도 광장시장 패션스쿨, 동대문종합시장 DIY프로그램, 한류 메이크업 쇼, 시민 참여 댄스 플래시몹 등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이날 DDP 주요 시설과 주변 도로에서 열리는 '제1회 DDP 동대문 축제'를 통해 DDP가 창조경제를 선도하며 동대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

This Week Stage

뮤지컬

레베카 ~11월 9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문의: 1577-6478

그날들 ~2015년 1월 18일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 문의: 1544-1555

황태자 루돌프 ~2015년 1월 4일 디큐브아트센터 문의: 02)6391-6333

조로 ~10월 26일 충무아트홀 대극장 문의: 02)764-7858~9

보이첵 ~11월 8일 LG아트센터 문의: 02)2005-0114

드립걸즈 시즌3 ~11월 1일 CGV신한카드아트홀 문의: 1577-3363

더 데빌 ~11월 2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02)708-5001

쓰릴 미 ~10월 26일 유니플렉스 2관 문의: 02)766-2115

온조 ~11월 2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문의: 02)410-1114

연극

나쁜 녀석들 ~12월 31일 대학로 진건아트홀 문의: 02)764-557

황금연못 ~11월 23일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문의: 1544-1555

옥탑방 고양이 ~오픈런 대학로 틴틴홀 문의: 02)764-8760

프랑켄슈타인 ~11월 9일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문의: 02-766-6007

월남스키부대 ~2015년 1월 31일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 문의: 1544-1555

유럽블로그 ~2015년 1월 18일 대학로 티오엠 1관 문의: 1544-8303

연극열전5-프라이드 ~11월 9일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문의: 02)766-6007

친정엄마와 2박3일 ~11월 2일 이화여대 삼성홀 문의: 02)542-4145

콘서트

장기하와 얼굴들 콘서트 10월 23일~11월 2일 롯데카드 아트센터 문의: 1544-1555

god 콘서트 10월25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문의: 02)2240-8809

드림 시어터 내한공연 10월24일 악스코리아 문의: 02)457-5114

남진 콘서트 10월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문의: 02)410-1114

전시 행사

조선청화靑畵, 푸른빛에 물들다 ~11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1688-2046

세바스치앙 살가두 GENESIS 2014 한국 전시 ~2015년 1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문의: 02-2038-2267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조형전 ~2015년 3월 1일 용산 아이파크몰 6층 특별전시관 문의: 1688-6875

오드리 헵번 전시회 ~2015년 3월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2관 문의: 02)546-3834

반 고흐: 10년의 기록展 ~2015년 2월 8일 용산전쟁기념관 문의: 1661-0207

나르샤의 짝사랑·김민준의 솔직 입담

주말엔 본·방·사·수

10월 마지막 주말 화제의 프로그램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만끽할 기회를 뒤로 하고 방콕할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외로움과 지루함을 날려 버릴 수 있는 이번 주말 화제의 프로그램을 미리 만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오 마이 태오' 나르샤 사랑 고백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나르샤가 25일 SBS '오! 마이 베이비'에 깜짝 출연한다. 나르샤는 이날 리키김의 아들 태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할 예정이다. 나르샤는 "잘 웃고 잘 먹고 건강한 태오가 너무 좋다"며 "태오는 딱 내 스타일"이라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오와 둘만의 데이트를 하게 된 그는 문방구 불량 식품과 분식 음식, 커플 반지까지 사며 선물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 과연 태오는 나르샤의 짝사랑을 받아 줄까? 25일 토요일 오후 5시 확인할 수 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박형식·서강준 우정 회복?



박형식과 서강준이 의기투합한다. 25일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강서울(남지현)·윤은호(서강준)는 차달봉(박형식)의 요리를 보며 무언가를 위해 힘을 합친다. 지난주 차달봉은 한 번 본 걸 또렷하게 기억하고 주방장의 요리법을 완벽하게 재현해 내는 의외의 재능을 발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차달봉의 능력이 다시 한번 발휘, 위기에 처한 윤은호 레스토랑을 구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차달봉과 윤은호는 어린 시절 친구였지만 강서울을 두고 사랑 경쟁을 하고 있다. 음식점의 위기로 두 남자의 우정이 회복될 지 기대를 모은다.

'식사하셨어요?' 김민준, 3개월 칩거 공개



26일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식사하셨어요?'는 배우 김민준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담아낸다. 김민준은 이날 영화 '후궁'(2012)을 위해 3개월 동안 집에 있었던 사연을 공개한다.

"영화 촬영 당시 감독님이 만족할 때까지 목소리 톤을 바꿨다"는 김민준은 내시 역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에 맞는 피부톤 유지를 하고자 3개월 동안 집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해 현장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민준이 뽑은 인생 최고의 역할도 공개될 예정이다.

'SBS 스페셜' 4배 선명한 자연 다큐

'SBS 스페셜'이 2부작 자연다큐멘터리 '세상의 끝 갈라파고스'를 HD와 4K UHD(풀 HD의 4배 이상 해상도)로 동시 방송한다. 이는 SBS가 국내 최초로 1시간 분량의 정규 방송물을 동시 송출하는 것이며 지상파가 UHD콘텐츠 제작과 송출에 준비가 됐다는 걸 입증하는 일이다.

특히 해양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진이 자연의 보고 갈라파고스를 4K UHD로 촬영 제작한 건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26일 방송될 1부 '공존의 세상' 편은 열대·한대 동물이 공존하는 갈라파고스의 생태계를 조명한다. 섬의 주인 바다사자의 감동적인 모정과 적도 바다의 계절이 바뀌는 기간인 '가루아' 풍경을 생생하게 전한다.



주말엔 이 노래

가을에도 어울리는 힙합·소울

가을에는 감성발라드만 어울린다는 편견을 깰 음반 두 장이 발표됐다.



바비킴 정규 4집 '거울'… 다양한 장르 소화
에픽하이 정규 8집 '신발장'… 수록곡도 인기

4년 만에 컴백한 가수 바비킴(사진)은 새 앨범 '거울'에서 힙합·R&B·소울을 모두 아울렀다.

인트로 곡 '거울'은 지독한 슬럼프를 이겨낸 바비킴의 진솔한 이야기와 목소리가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타이틀 '사과'는 오랜 연인에게 소홀했던 한 남자의 반성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다. 중반부터 마지막까지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트럼펫 연주는 바비킴의 아버지인 김영근 씨가 맡았다.

힙합그룹 부가킹즈의 멤버이기도 한 바비킴은 이번 앨범에 소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담았다. 수록곡 '유 돈트 노우'는 일렉트로닉 기타 사운드 위로 쏟아지는 비트가 신나는 노래다. 바비킴은 이번 앨범에 대해 "한국에 온지 20년째인데 예전보다 좀 더 한국적인 멜로디가 짙어졌다"며 "예전 앨범이 힙합 비트를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앨범은 멜로디 요소가 좀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힙합 그룹 에픽하이(사진)가 지난 21일 발표한 정규 8집 '신발장'은 타이틀 곡 '헤픈엔딩'과 '스포일러'를 비롯해 선공개곡 '본 헤이터' 등이 온라인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밴드 롤러코스터의 보컬 조원선이 피처링에 참여한 '헤픈엔딩'은 조원선의 차분한 보컬과 타블로·미쓰라 진의 랩이 한 데 어우러지며 쓸쓸한 가을 느낌을 자아낸다.

'본 헤이터'는 앨범 발매에 앞서 뮤직비디오가 먼저 공개돼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 올드스쿨 힙합 비트에 도발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힙합 곡이다.

이번 앨범은 개코·빈지노·태양·김종완(넬)·조원선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피처링에 참여해 더욱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장보리 덕분에 참을성 늘었어요"



'왔다 장보리'의 히로인 오연서

weekend interview

"이렇게까지 대박날 줄 몰랐다"… 어안이 벙벙
작은 역할도 좋으니 강렬한 캐릭터 해보고파



최근 종영한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주인공 장보리를 연기한 배우 오연서(27)는 "이렇게까지 대박날 줄 몰랐다"며 높은 인기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다. 시청률 20%만 넘어도 '대박 드라마'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왔다 장보리'는 최고 시청률 37.3%(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뽀글뽀글 파마머리부터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까지, 새침한 도시 여자 이미지가 강했던 오연서에게 장보리 캐릭터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의 연기 인생에 변환점이 됐다.

◆ 첫 주연작에서 대박을 쳤다. 차기작에 대한 부담감이 크겠다.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다. 상대역 김지훈 오빠는 처음에 시청률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신기하다고도 했다. 차기작은 당연히 부담된다. 사실 겁도 많고 눈치도 많이 본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 어떤 역할이든 늘 부담감은 심하고 떨린다.

◆ '왔다 장보리'를 하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

악성댓글. 저번에 악플에 대해 이야기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지금도 좀 울컥한다. "'왔다 장보리'에서 장보리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댓글을 보고 무척 속상했다. 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또 "싸가지가 없다더라"라는 댓글도 봤다. 어릴 때부터 새침하게 생긴 얼굴로 오해를 많이 샀다.

전라도 사투리 연기도 어려웠다.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연습해 갔는데 선생님들께서 "네가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해주셨다. 온 가족이 보는 드라마니까 영화처럼 디테일하고 격하게 사투리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다.

그래도 식당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힘내라고 해주셨다(웃음). "아이고, 보리왔냐" 이러면서 내 엉덩이도 툭툭 두들겨 줬다. 내 얼굴이 약간 고양이처럼 생겨서 첫 인상이 날카롭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게 큰 스트레스였는데 장보리 덕분에 친근한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 좋다.

◆ 장보리는 이제 넘어야 할 산이 됐다.

아직 장보리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감정 소모가 많았고 드라마 중반부터 눈물 신이 너무 많아 힘들었다. 매일 우니까 평소에도 우울해했다. 하지만 장보리 덕분에 참을성이 늘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커졌다(웃음).

◆ 2002년 아이돌그룹 '러브'로 데뷔했다. 원래 연기가 꿈이었나.

지금도 노래방 가면 러브의 데뷔곡 '오렌지 걸'을 부른다. 안무도 빼먹지 않는다(웃음). 혼자서 멤버 세 명 파트를 소화하면 같이 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연기는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다. 러브 활동이 빨리 끝난 뒤 안양예고에 진학해서 연기를 전공했다. 고3이 되면 수능을 준비하듯 나 역시 연기를 전공했으니 대학에서도 계속 그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연극영화과에 진학했다.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중3 어린 나이에 데뷔했는데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좋아보여서 막연하게 하고 싶었다. 그때는 연예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으니까. 무명 시절이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았다. 데뷔 후 6개월 이상 쉬어본 적이 없다. 조연이든 단역이든 꾸준히 했다.

◆ 가수 활동이 아쉽지는 않은가.

전혀(웃음).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그룹 활동은 그게 어렵다. 개인보다 팀이 우선시 돼야 하니까. 또 춤과 노래에 재능도 없다(웃음).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건 참 멋있다. 하지만 나는 카메라 앞에서 배우들과 호흡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고 재밌다.

◆ 연기에 처음 재미를 느낀 건 언제인가.

영화 '여고괴담'을 찍었을 때. 또래 배우들과 연기하는 게 즐거웠다. 사이코패스를 연기했는데 카타르시스가 무척 컸다. 내가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역할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게 연기의 매력이다.

◆ 차기작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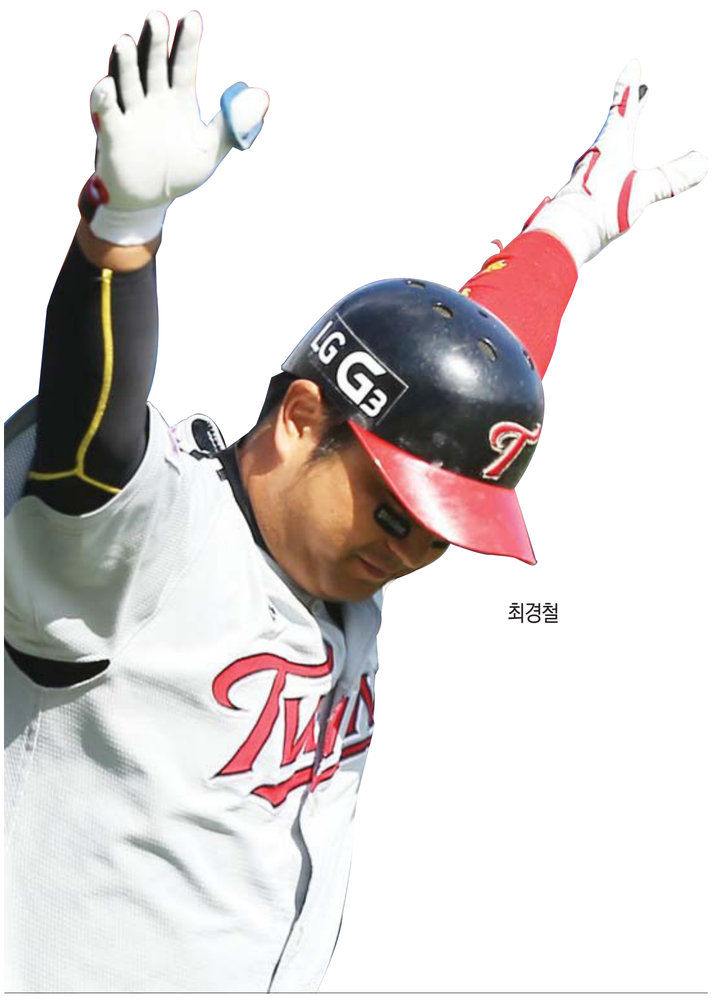
좋은 작품으로 찾아 가고 싶다. 주로 밝은 캐릭터를 해왔는데 팜므파탈 역할을 해보고 싶다. '범죄의 재구성' '도둑들' '이탈리안 잡' 같은 영화를 좋아한다. 캐릭터만 분명하다면 분량도 상관없고 역할이 작아도 좋다. 선배님들과 함께 그런 신나는 작품을 하면 영광스러울 것 같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파죽지세' LG vs '김경문 매직' NC

주말의 핫스팟

프로야구 준PO 3차전… 24일 에이스 리오단-찰리 출격



최경철

LG 트윈스의 목동행이냐, NC 다이노스의 잠실벌 반격이냐.

24일 한국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 양 팀은 총력전을 예고한다. NC는 에이스 찰리 쉬렉(29)을 내세워 '벼랑 끝' 탈출을 시도한다. LG는 코리 리오단(28)을 출격시켜 준PO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1승 사냥에 나선다.

이에 앞선 준PO 1·2차전은 적지인 창원 마산구장에서 LG가 모두 승리했다. 5전3승제인 준PO에서 1승만 추가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NC는 안방에서 두 차례 승리를 놓쳤다. 남은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해야 플레이오프 무대에 설 수 있다. 이 경우 두 경기는 잠실, 마지막 경기는 다시 안방인 마산에서 치르게 된다.

이날 선발로 나설 양팀 에이스는 원래 지난 20일 준PO 2차전에서 맞붙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1일 이틀 연속으로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며 잠실구장에서 만나게 됐다. 이 둘은 나란히 잠실에서 상대팀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던 좋은 기억이 있다.

찰리는 지난 6월 24일 선발 등판해 9이닝동안 볼넷 세 개만 허용하며 무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는 '노히트 노런' 대기록을 작성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외국인 투수가 달성한 첫 노히트노런이었다.

리오단은 이틀 뒤인 6월 26일 잠실구장에서 NC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안타 4개만을 허용하고 무실점하며 '완봉승'으로 설욕했다. 찰리와 리오단은 미국 출신의 우완 정통파 투수로 이번 맞대결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올 시즌 성적을 보면 찰리가 12승8패 평균자책점 3.81을 기록했고 리오단은 9승10패 평균자책점 3.96을 거둬 찰리가 다소 우세하다. 시즌 성적은 처지지만 NC를 만나면 펄펄 날았던 리오단이다. NC와 2차례 만나 모두 승리투수로 이름을 올렸고 NC 상대 평균자책점은 0.60에 불과하다.

치열한 마운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승패의 변수로 LG의 홈구장 '잠실'이라는 점과 NC 김경문 감독의 '마법'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떠오른다. 정규시즌 막바지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LG는 홈구장에서 프로야구 최고 인기구단의 '응원 파워'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NC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역대 한국 프로야구에서 5전3선승제로 치러진 준플레이오프는 7번 있었다. 이 중 한 팀이 1·2차전 모두를 가져간 적은 네 번 있었고 2연승 후 결국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경우가 두 번 있었다. 나머지 두 번은 2연패 후 3연속 승리를 따내 기적처럼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그 두 차례 모두 두산 베어스가 해냈다.

두산은 2010년 롯데 자이언츠를, 지난해에는 넥센 히어로즈를 준플레이오프에서 만나 먼저 2패를 당했다가 세 판을 내리 이기는 '뚝심 야구'를 펼쳤다. 김경문 NC 감독은 2010년 당시 두산을 이끌며 기적을 일궈냈다. 1·2차전을 잠실 홈에서 롯데에 패했고 3·4차전을 적지인 사직에서 따냈다. 결국 5차전 다시 홈으로 롯데를 불러들여 11-4 대승을 만들었다.

상황은 지금과 비슷하다. 홈에서 먼저 2패를 당한 NC는 김 감독의 경험을 믿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오승환-이대호 열도 홀린다

25일 일본시리즈… 한신 VS 소프트뱅크 '빅뱅'

주말의 스포츠월드

프로농구 전적 23일

오리온스	22	14	29	16	**81**
전자랜드	33	16	16	14	**79**
LG	16	24	18	23	**81**
인삼공사	21	17	19	18	**75**

프로배구 전적 23일

현대건설	3	1	흥국생명
한국전력	0	3	대한항공





25일 '독도의 날' 일본 열도는 한국에 열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야구 간판 오승환(32·한신 타이거스·사진 왼쪽)과 이대호(32·소프트뱅크 호크스·오른쪽)가 일본시리즈 1차전에서 역사적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둘의 만남은 사상 최초 일본시리즈 한국인 투타 맞대결이다. 팀 내에서 좋은 성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이 자체가 큰 볼거리가 된다. 둘은 한국 포스트시즌 무대에서도 마주친 적이 없다.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한 둘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25번 만났다. 8안타(타율 0.320) 3홈런을 기록한 이대호가 다소 우세했다.

둘은 일단 서로를 의식하기 보다는 팀 승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둘이 마주친다면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된다. 아울러 그 장면은 해당 경기의 승부처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김학철기자

메시와 호날두, 그리고 수아레스

주말의 스포츠월드

시즌 첫 '엘 클라시코'… 26일 새벽 별들의 전쟁

'엘 클라시코', 이름만 들어도 축구 팬을 설레게 만드는 별들의 전쟁이 오는 26일 오전 1시(한국시간) 펼쳐진다. '엘 클라시코'는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 속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더비 경기를 이르는 말이다.

리오넬 메시(26·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레알 마드리드·사진)의 시즌 첫 맞대결이기도 한 이번 경기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2014-2015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9라운드 경기로 치러진다.

이번 경기에서는 메시와 호날두의 물오른 기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데뷔 10년을 채웠다. 지난 19일 에이바르와의 8라운드 경기에서 프리메라리가 통산 250골의 대기록을 작성했다. 1955년 텔모 사라가 기록한 리그 최다 골 251개에 1골 뒤진 상태다. 이날 경기에서 메시가 새 역사를 쓸지가 관전 포인트다.

리그 선두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무패행진(7승1무·승점 22)을 달리고 있다. 3위 레알 마드리드(승점 18)는 이날 승리로 3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팀에서는 호날두의 발에 거는 기대가 크다. 호날두는 23일 벌어진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선취골을 넣으며 리그 개인 통산 70골을 기록했다.

이 부문 기록은 라울 곤살레스가 71골로 지키고 있지만 호날두와 메시의 발로 갈아치울 게 분명해 보인다. 메시는 현재 69골로 호날두에 1골차 2위를 달리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개인 통산 득점왕 자리를 놓고도 이 둘은 박빙인 것이다.

올 시즌 리그 기록만 놓고 보면 호날두가 다소 앞서 있다. 호날두는 정규리그 15골을 기록해 이 부문에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반면 메시는 7골로 네이마르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도 이같은 열기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리버풀(잉글랜드)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수아레스는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를 깨물어 4개월 활동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풀린 뒤 첫 경기가 바로 엘 클라시코다. 메시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을 흔들겠다는 각오다.

통산 전적으로 따지면 레알 마드리드가 91승48무88패로 바르셀로나에 앞선다. 지난 시즌에는 3차례 만나 바르셀로나가 2승1패로 앞섰다. 그러나 지난 시즌 마지막 엘 클라시코이자 중요도가 높은 국왕컵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2-1로 꺾고 우승해 바르셀로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바 있다. /김학철기자



UNIVERSIADE
GWANGJU 2015
FISU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Light Up Tomorrow
창조의 빛 미래의 빛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Dates : July 3rd ~ 14th, 2015(12days)
Venues : Gwangju World Cup Stadium and other stadiums
기간 : 2015. 7. 3 ~ 14(12일간)
장소 : 광주 및 인근 시·군 경기장
Suzy (Promotional Ambassador of 2015 Gwangju Universiad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 수지
Global Premium Partner
SK C&C
SK telecom
KIA

"김치만큼 과학적인 음식은 없습니다"

'김치 박사'가 만드는 건강 김치… 기능성 부여에 애착

사람이야기

■ 이기근 놀부 생산본부장

본격적인 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일제히 최근 트렌드에 따라 절임배추와 양념 등의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보통 4인 가구 가정에서는 20포기 가량의 김장을 담그게 된다. 이때가 되면 집안은 연례행사처럼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런 가운데 매일 약 1만 포기, 6톤 가량의 김치를 담그는 곳이 있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놀부 생산공장은 보쌈용 김치 생산량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일반 가정에서 담그는 김치와 보쌈용 김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쌈용 김치는 염도를 낮춰 짠 맛을 줄였지만 단 맛은 높이고 숙성 과정을 생략해 아삭함이 강하도록 제조됩니다."



이 공장에서만 18년을 지낸 터줏대감 이기근(사진) 생산 본부장의 말이다.

이 회사 공채 1기로 입사한 이 본부장은 보다 좋은 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말부부라는 어려움 속에도 김치분야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의 논문 주제는 '상황버섯균사체를 활용한 기능성김치 제조에 대한 연구'.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능성 김치 제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우선 모든 김치에서 화학조미료를 모두 뺐습니다. 또 생산시설의 위생화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기능성 김치에 앞서 건강한 김치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 본부장의 뜻은 회사에 전달돼 받아들여졌고 김치 생산과정에 보기드물게 2대의 엑스레이 검출기까지 설치했다. 김치 제조장의 바닥은 항균 처리하고 공기 살균을 위해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양압시설도 갖췄다.

이 시설을 기본으로 건강에 좋은 '흑마늘 김치'를 실제로 생산했지만 붉은색 김치에 익숙한 소비자들로부터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못내 아쉬워 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에는 기존 제품보다 염도를 10% 가량 낮춘 저염 김치를 만드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김치만큼 과학적인 식재료는 없다"며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도 진출한 놀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활용해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것이 희망"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얼마전 방문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유산균 수입 조건을 완화하기로 해 우리 김치의 대중국 수출길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김치 생산량은 소비 감소로 2.5%가량 줄어 우려스럽다"고 일희일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향후 FTA가 성사되면 중국산 재료들이 더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반제품 수입도 늘어나게 되면 우리 김치의 설 자리가 줄어 들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LG생명과학 난임 치료제 中 진출

유건의약그룹과 독점 판매 계약



국산 난임 치료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LG생명과학은 중국의 유건의약그룹과 난임 치료용 배란유도제 '폴리트롭'에 대한 중국 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절강성 현지에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유건의약그룹은 중국에서의 제품 임상시험과 허가·판매를 담당하게 되며 LG생명과학은 완제품을 생산해 공급하게 된다.

정일재 LG생명과학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난임 치료제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중국에 알리고 파트너사와 함께 이 제품이 중국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LG생명과학이 독자적인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해 개발에 성공한 난포자극 호르몬 제제다.

/황재용기자 hsoul38@



더 커지고 맛있어진 '빅불버거' 롯데리아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불고기버거를 업그레이드한 '빅불버거'를 출시했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리아 종각역점에서 모델들이 초대형 빅불버거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신제품 출시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티몬, 마스크팩 PB브랜드 출시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티몬이 제조 업체와 손잡고 기초 화장품 자체 브랜드(PB) '티젠(TIGENE)'을 출시한다.

티젠의 첫 상품은 마스크팩 '시크릿 하이드로겔 마스크'다. 국내 마스크팩 제조 1위 업체인 제닉의 오랜 기술력이 집약된 고기능성 마스크팩으로 주름관리와 미백·모공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데이지·백합·연꽃 등 10가지 흰색 꽃에서 나온 추출물이 주요 성분이다.

티몬은 티젠을 마스크팩 대표 브랜드로 키우고 자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말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한편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23일부터 링클케어·미백·모공 3종을 각각 55% 할인한 1800원에 판매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롯데호텔모스크바, '유럽 최고의 호텔' 선정

빌리제뚜르 어워드에서 '레스토랑'도 호평

롯데호텔은 롯데호텔모스크바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빌리제뚜르(Villegiature) 어워드 2014'에서 '유럽 최고의 호텔(BEST HOTEL in EUROPE)'과 '유럽 최고의 레스토랑(BEST HOTEL RESTAURANT in EUROPE)'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3년 시작된 어워드는 소렐(Sorell)이 주관하는 전 세계적 호텔 어워드로 매년 20명 이상의 유명 언론인이 심사위원을 맡아 유럽·아시아·아프리카·중동의 최고 호텔과 레스토랑을 선정해 수상자를 발표한다.

롯데호텔모스크바는 이번 수상에서 2위에 오른 르 로얄 몽소 래플스(Le Royal Monceau Raffles) 호텔 등과 경쟁해 최종 1위에 올랐으며 레스토랑 부문에서도 피에르 가니에르 셰프가 진두지휘하는 롯데호텔모스크바의 레 메뉘(Les Menus)가 유럽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뽑혔다.



한편 롯데호텔모스크바는 2012년과 2013년 여행업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콘데 나스 트래블러(Conde Nast Traveler)'를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황재용기자

도심서 즐기는 '핼러윈 데이!'



호텔가, 다양한 파티와 프로모션 선봬

매년 10월 31일은 '핼러윈 데이'다. 진정한 핼러윈 데이를 즐기려면 미국으로 가야겠지만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도심에서 얼마든지 짜릿한 핼러윈 데이를 만끽할 수 있다. 호텔가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파티에 빠져보자.

먼저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뉴욕 스타일의 라운지 바 조이에서 31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의리'를 콘셉트로 하는 'Hallo으리 파티'를 개최한다. 콘셉트에 맞게 분장한 조이 바의 스태프들과 핼러윈 분위기로 꾸며진 바에서 의리 게임과 마술 쇼 등이 펼쳐지며 행운권 추첨 행사도 이어진다.

롯데호텔서울은 31일까지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에서 핼러윈 섹션이 별도로 마련된 '해피 핼러윈 2014'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은 다음 달 1일 웨스트 타워 그랜드 볼룸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거리가 가득한 '핼러윈 키즈 파티'를 연다.

이와 함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로비 라운지에서는 31일 단 하루 동안 뉴욕 스타일의 음식과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핼러윈 인 뉴욕 원더아워(Halloween in New York Wonder hour)'를 준비한다. 서울팔래스호텔 뷔페&카페 레스토랑 스톤플레이트는 가족이 함께 신나는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패밀리 핼러윈 파티'를 마련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편안한 숙박과 함께 파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이제이 핼러윈 파티 패키지'를 선보이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바 루즈에서는 31일 저녁 '섹시 호러 핼러윈 파티'를 만날 수 있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의 엔터테인먼트 펍바 그랑아도 31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핼러윈 파티를 개최한다. 더 플라자의 프랑스 프리미엄 베이커리 에릭케제르에서는 핼러윈의 상징인 잭오랜턴(Jack-O'Lantern) 호박을 활용한 다양한 에디션 제품을 준비했다.

또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의 서울 베이킹 컴퍼니에서는 특별 제작한 컵케이크 8종이, 쉐라톤 인천 호텔의 부티크 바 비플랫(Bb)에서는 '더 몬스터 호텔'이라는 테마의 파티가 고객을 기다린다.

아울러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은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최근 새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한 루프톱바 클라우드에서 핼러윈 파티를 개최하는 동시에 '핼러윈 파티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패키지와 자유여행의 매력을 동시에

노르웨이 오로라·베니스 가면 축제 등 'SIT' 인기



패키지여행 대신 개인이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여행하는 자유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특별관심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SIT(Special Interest Tour)'가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SIT는 여행자의 관심 주제를 최대한 배려한 여행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문 가이드 역할을 하는 맵 헤드(Map Head)가 여행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생생한 현지 정보 등을 전달하면서 여행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투어 등을 중심으로 서서히 입지를 다져가고 있으며 평소 쉽게 갈 수 없던 노르웨이 오로라 프로그램과 화려한 가면의 향연으로 잘 알려진 베니스 가면 축제 프로그램 등이 최적의 여행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노르웨이 출신의 극지 탐험가인 로알 아문센을 모티브로 한 노르웨이 오로라 프로그램은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하늘의 우주 쇼 '오로라'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여행으로 차가운 북극 겨울의 따뜻함과 포근함, 신비함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세계 10대 축제 중 하나인 베니스 카니발은 가면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가장행렬, 연극 공연, 불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더욱이 SIT를 이용하면 인근의 여행지 구경은 물론 힐링을 위한 휴식과 다양한 레포츠도 즐길 수 있으며 여유를 갖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어 여행자에게 최고의 추억을 선물한다.

/황재용기자

부산의 매력에 빠져보자!

불꽃축제 등 볼거리 풍성… KTX 당일치기 가능

넓고 깊은 남해바다가 펼쳐지고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부산은 단연 여행자의 천국이다. KTX를 타고 서울에서 약 3시간이면 도착하는 부산은 당일치기 여행으로는 그 매력의 절반도 알 수 없을 만큼 다이나믹한 도시다.

먼저 24일과 25일 이틀간 부산 광안리에서는 화려한 불꽃들이 밤바다를 가득 메운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부산불꽃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특히 광안대교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쇼가 불꽃축제와 함께 진행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불꽃축제 전후로는 월광욕을 즐길 수 있는 길 '문텐로드(달맞이 고개)'를 돌아보는 것이 적당하다. 전국적으로 올레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바다를 배경으로 걷는 부산의 올레길인 문텐로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특별하다. 달맞이 고개의 월출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으며 총 5개의 코스로 이뤄져 있다.

또 '한국의 마추픽추'라 불리며 근대사의 흔적을 곳곳에 간직한 감천문화마을과 원도심 투어, 그리고 해운대와 광안리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부산여행의 명소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부산과 여수 등 국내 호텔을 최대 58% 할인하는 익스피디아를 이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특급호텔에 숙박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코레일관광 '日 자전거 투어' 출시



코레일관광개발이 다음 달 13일 '일본 야마구치 MTB 자전거 투어'를 실시한다.

투어는 국내 최초로 일본 라이딩 전세선을 이용해 자전거여행의 천국으로 불리는 야마구치의 가을을 즐기며 특급온천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또 총 3박 4일의 일정인 투어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한다. 라이딩은 '유모토 코스'와 '하기 코스'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일본여행과 국내 레포츠열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일본 라이딩 전세선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일본의 색다른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63빌딩 계단 오르며 추억 쌓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 홍원기)가 다음 달 2일 63스퀘어에서 '제12회 63 계단오르기 대회: 63 Challenge for Love'를 개최한다.

대회는 63빌딩 최고층까지 계단을 뛰어오르며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고 자신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색 마라톤대회로 참가자들은 1층 로비에서 60층 63스카이아트까지 총 1251개의 계단을 오르게 된다.

또 대회는 기록경기 부문과 이색복장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회사는 아이패드와 한화리조트 숙박권 등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회 당일에는 10층 단위로 사칙연산 퀴즈를 풀어보는 계단 돌발퀴즈 이벤트와 동물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린다.

/황재용기자

‘노란 속살’ 단호박에 빠지다

달콤한 맛과 포근한 식감에 영양까지 풍부한 건강식품 단호박. 평소 즐기던 기본적인 레시피에 단호박만 추가하면 맛·영양·비주얼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세가지 요리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단호박 크림파스타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532㎉ / 조리시간: 30분

[재료] 단호박·양파 각 1/2개, 베이컨 6장, 숏파스타 200g, 바질·식용유 각 약간, 버터 2큰술, 생크림 1과 1/2컵, 우유 1/2컵

[양념] 마늘·소금·후추 각 약간

1. 양파는 채 썰고 베이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2. 냄비에 버터를 두르고, 양파채와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베이컨을 넣고 함께 볶아 준다.
3. ②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우유·생크림·바질을 넣고 끓이다가 끓어 오르면 불을 약하게 줄여 10분 정도 더 끓인 후 소금·후추로 간한다.
4. 단호박은 찜통에 넣고 쪄 속을 파낸다.
5. 끓는 물에 소금·식용유를 약간 넣고 파스타를 넣어 기호에 맞게 적당히 삶는다.
6.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삶아 놓은 파스타면을 볶다가 끓여 놓은 소스를 버무려 함께 볶은 후 ④에 담아낸다.



◆단호박 찹스테이크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270㎉ / 조리시간: 30분

[재료] 단호박, 안심 스테이크용 180g, 양송이버섯·양파·브로콜리·당근·베이컨 각 30g, 식용유 10㎖, 물 20㎖

[양념] 마늘 5g, 레드와인 10㎖, 소금·후춧가루 각 약간, 스테이크 소스 25㎖

1. 안심은 심줄과 기름을 제거하고, 3㎝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한다.
2. 양송이는 절반으로 자르고 양파·당근은 3㎝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브로콜리는 꽃봉오리만 잘라서 끓는 물에 데친다.
3. 팬을 달군 후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다가 고기와 베이컨을 넣고 소금·후춧가루로 간을 한다.
4. 고기의 표면이 익으면 레드와인을 넣고 양송이버섯·양파·브로콜리·당근을 넣고 볶는다.
5.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스테이크 소스를 넣어 볶아준다.
6. 찜통에 쪄낸 단호박의 속을 파내고 ⑤를 담아 200℃로 예열한 오븐에 15분 정도 구워낸다.



◆단호박주뻬따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421㎉ / 조리시간: 60분

[재료] 단호박·생크림 각 50g, 감자 20g, 양파·버터 각 10g, 닭육수 150g

[곁들임] 새송이버섯 1개, 새우 1마리, 탄산수·밀가루·튀김용 식용유·새싹 각 약간, 과일 케이커 2개, 호박씨 5개

1. 양파는 채썰고 단호박과 감자는 얄팍하게 썬다.
2. 냄비에 버터를 녹여 양파를 볶고 단호박과 감자를 넣어 조금 더 볶는다.
3. 육수를 넣고 푹 끓인 후 곱게 잘 갈아준 뒤 생크림을 넣고 간을 맞춰 살짝 끓인다.
4. 새송이버섯은 납작하게 썰어서 볶아 소금으로 간 한다.
5. 새우는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고 내장을 뺀다.
6. 밀가루와 탄산수를 잘 섞어 튀김 반죽을 만들고 새우는 밀가루를 살짝 묻히고 튀김 옷을 입혀 튀긴다.
7. 호박씨는 기름 없이 팬에 볶아둔다.
8. 오목한 그릇에 단호박 주뻬따를 깔고 가운데에 버섯을 넣고, 위에 새우튀김을 올린다.
9. 호박씨와 과일케이퍼를 주변에 놓고, 맨 위에 새싹을 올려 장식한다.

편의점폰·중고폰, 단통법 특수

할인 가능해지자 고객 발길 잦아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온라인 유통업계와 편의점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요금 할인이 가능해지면서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또 편의점은 최저가 판매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오픈마켓에서 중고폰이나 공기계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오픈마켓 옥션의 경우 10월 들어(1~21일) 공기계(새제품+중고제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다. 이중 중고폰은 판매율이 25% 신장했다. 해외 브랜드 공기계도 전달 대비 200% 판매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G마켓과 11번가에서도 각각 26%·206% 중고폰 판매가 늘어났다.

소비자들이 중고폰이나 해외 브랜드 휴대폰을 찾는 이유는 단통법 시행으로 이들 휴대폰도 요금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는 매월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중고 제품도 새것이나 다름 없는 최상의 상태를 갖춘 것이 인기 요인”이라며 “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공기계로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고폰 수요에 매입 서비스도 시작됐다.

매입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인 11번가는 이달 서비스 매출이 38% 증가했다.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로 택배(착불)를 보내기만 하면 매입 절차가 완료된다. 이를 통해 최대 43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G마켓도 ‘중고폰 원클릭 매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품을 직접 수거하고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편의점은 15% 할인율 적용을 내세웠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법정 보조금 상한선(30만원)에서 15% 범위 내에서만 대리점별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별로 동일한 조건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예전보다 할인이 적어 불만이 크다.

이에 GS25는 KT의 노트4·노트4 엣지·LG G3 캣6·G3비트 등을 공시된 단말기 금액에서 15%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별도의 매장 운영 비용·판매사원 투입 비용·중간 유통 마진을 최소화해 15% 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GS25 관계자는 “휴대전화 전문 판매점의 경우 영업 비용과 자체 마진 확보를 위해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2주 가량을 새로운 정책 홍보에 주력해왔고 점차 휴대폰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건강한 겨울나기 “곰탕으로 챙기세요~”

강강술래, 한우사골곰탕 1+1… 나들이세트·육포 등 최대 40%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큰 일교차로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고객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한우사골곰탕 1+1 행사를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11월 14일까지 기력 보충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를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하며, 구매 때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냄비에 붓고 끓



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매우 간편하다.

같은 기간 상계·홍대·시흥·늘봄농원점은 소고기·한우불고기·돼지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각각 돼지양념을 주문한 인분 수만큼 증정하며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류 주문시 불고기를 준다.(해피아워·정식류 제외, 신림·시흥점 주중에만 진행)

가족이나 친구들과 캠핑이나 등산·나들이를 떠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웃도어 간편먹거리 할인행사도 이달 말까지 벌인다.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강강양념(520g)·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하고,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2만5800원)도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prms@

프리미엄 순대요리전문점 ‘강창구찹쌀진순대’ 호평

창업시장에서 비수기로 여기는 여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창업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리미엄 순대요리전문점 ‘강창구찹쌀진순대’가 예비창업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음식점은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내세워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로, 기존 순대국집보다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입점하는 매장마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 곳은 인삼순댓국·인삼정식·진순대정식·수제순대철판볶음·술국·수육·족발 등 식사와 술자리에 좋은 아이템을 알차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창적인 매장 인테리어 역시 강창구찹쌀진순대의 성공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외식업에서 외식문화로의 탈바꿈은 중장년층의 식사·술자리 장소로 인식되던 순대국집을 하나의 품격 있는 외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실제로 젊은 고객층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www.jinsoondae.com·1899-6696) /정영일기자

"신부보다 아름답네~" 시선 끄는 '하객 패션'

격식은 물론 나만의 개성 더해

본격적인 웨딩시즌이 다가오면서 결혼식 하객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부의 웨딩 드레스보다는 튀지 않으면서 주위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스타일링을 소개한다.

결혼식장에서는 격식을 갖춰야 하는 만큼 깔끔한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단아한 블라우스와 스커트의 코디는 하객 패션의 정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개성이 없어 보일 수 있으므로 칼라 부분에 디테일이 더해진 블라우스나 패턴이 가미된 스커트를 고르는게 좋다.

은은한 컬러와 체크패턴이 조화를 이룬 스커트에 가을 분위기가 느껴지는 컬러 가방을 포인트 주면 세련된 하객 룩이 완성된다.

평소 가지고 있는 옷이 적고 코디에도 자신이 없다면 원피스를 활용하는 게 제격이다. 원피스는 굳이 상·하의 스타일링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 인기다.

허리라인이 강조된 원피스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화려한 패턴의 원피스의 경우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도 멋스러운 룩이 완성돼 간편하다. 대신 이때는 가방·구두 등 소품을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 가방보다는 한 손에 가볍게 들 수 있는 클러치가 잘 어울린다.

클래식한 트렌치코트를 활용하면 단정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하객 패션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목 깃의 선을 살린 테일러링은 지적인 인상을 주기에 좋다. 색상을 강렬한 비비드 컬러보다는 차분한 브라운·베이지 등의 톤다운 된 색상이 멋스럽다.

평소 원피스·치마를 즐겨 입지 않는다면 컬러감이 있는 슬렉스 팬츠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깔끔한 화이트 블라우스에 니트 베스트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버건디 컬러의 팬츠를 매치하면 가을과 잘 어울리는 하객패션을 연출할 수 있다. 여기에 뒷부분이 커팅된 슬링백 슈즈는 팬츠를 입은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든다.

팬츠에는 작은 가방보다는 빅백을 도회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분위기가 난다. 함께 매치할 주얼리나 액세서리는 볼드하면서 레이어링이 쉬운 링이나 팔찌를 활용하면 된다.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 관계자는 "자신의 개성과 시즌에 맞춰 컬러와 디자인을 잘 활용하면 스타 못지않는 멋스러운 하객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화장품 광고 촬영한 엑소(EXO)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의 전속모델 EXO(엑소)가 대한민국 원조 수딩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베라 92% 수딩젤' TV-CF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자연이 만든 베스트셀러'라는 콘셉트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전용 유기농 알로에 농장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네이처리퍼블릭 제공

동국제약, 입술 보호제 '마데코밤' 판매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입술 보호제 '마데코밤(Madecobalm)'의 2014년 시즌 판매를 본격 시작했다.

마데코밤의 주성분은 회사의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과 같은 식물 성분인 '센텔라 정량추출물'로 이 성분은 피부 내 콜라겐의 정상적인 생합성을 유도해 피부 재생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한 노화 방지와 보습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자외선(UV) 차단 기능으로 자외선에 의한 입술 변색도 막을 수 있다.

제품은 색과 향이 없는 '마데코밤 모이스처'와 핑크색과 체리향의 '마데코밤 핑크' 두 가지 종류로 출시됐다.



한편 회사는 10월 중순부터 연기자 정혜영을 모델로 한 마데코밤 TV광고를 방영하고 있으며 제품은 전국 약국에서 구입가능하다.

/황재용기자

뼈대있는 유아용품 '맘심' 공략

역사·전통 기업 신뢰도와 직결

'50년된 유모차' '46년 전통 카시트' 등 오랜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유아용품이 엄마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품질이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브랜드가 가진 역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은 꽤 크다.

업계 관계자는 "유아용품은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안전성이다"며 "브랜드의 오랜 역사는 기업이 주는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맥클라렌(사진)은 1965년 영국의 항공기 설계사 겸 파일럿인 오웬 맥클라렌(Owen Findley Maclaren)이 무거운 유모차와 씨름하는 딸이 안쓰러워 항공기 랜딩 기어를 적용한 접이식 유모차를 개발한 것에서 출발한 브랜드다. 이 브랜드 상품은 지난 2002년 국내 론칭 이후 누적 3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46년 전 세계 최초 카시트를 탄생시킨 브라이택스는 현재 전세계 71개국에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세계 특허 기술로 2차 충격으로부터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리바운드 스토퍼를 장착하고, 충격 분산에 효과적인 6점식 안전벨트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을 보장해주는 카시트로 유명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숨쉬는 매트리스로 알려진 트라움랜드는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혁신적인 통풍 시스템과 반영구적인 향균성 등을 특징으로 내세우는 브랜드다. 또한 세계적으로 통일된 테스트 기준인 '에코-텍스 규격 100'(Oeko-Tex Standard 100)에 의거해 1등급 인증마크를 획득하기도 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이대목동병원 '뇌졸중' 건강강좌 개최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 기념…다양한 정보 소개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센터장 김용재)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병원 대회의실에서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세계 뇌졸중의 날(10월 29일)'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송태진 교수) ▲뇌혈관에 좋은 음식(강병진 영양사) ▲뇌졸중 예방을 위한 운동(최종인 물리치료사)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 강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뇌졸중 안내 책자와 스트레칭 밴드 운동기구가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문의: 02)2650-5955 /황재용기자 hsoul38@



유행 민감 모바일게임 여심 잡기

'숲 속의 앨리스' '토이토이' 등… 동화 속 분위기 눈길

'숲 속의 앨리스' '우리 공주님이 제일 귀여워' '레브-꿈꾸는 소녀' '토이토이'…. 동화 제목이 아니다. 최근 출시됐거나 곧 시장에 나오는 게임 타이틀이다. 가을 감수성을 북돋는 서정적이고 분위기있는 모바일 게임들이 인기 순위를 독식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PC 온라인 게임보다 유행에 민감해 게임 풍속을 잘 드러낸다.

23일 모바일 게임 플랫폼 '카카오 게임하기' 집계에 따르면 인기 게임 상위 5개 가운데 3개가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작품들이다.

최고 인기 게임은 지난 21일 출시된 파티게임즈의 감성 SNG(소셜네트워크게임) '숲 속의 앨리스'로 3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게임은 수십여 종의 귀여운 미니언들을 모아 마법의 숲을 지킨다는 감성적 스토리와 깜찍한 캐릭터가 특징이다. '숲 속의 앨리스'는 유명 동화 '잠자는 숲 속의 공주'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합친 제목처럼 환상적 세계관과 몽환적 그래픽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현재 '숲 속의 앨리스' 이용자의 80%는 여성이다. 하지만 남성 이용자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카카오 게임하기 인기 부문 2위인 제오닉스의 마녀 성장 RPG(역할수행게임) '레브-꿈꾸는 소녀'는 지난달 30일 출시된 게임이지만 한달 가까이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 게임은 마녀 견습생인 소녀 캐릭터들이 어둠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마녀로 성장해 간다는 줄거리를 지닌다. 귀엽고 예쁜 소녀 캐릭터, 다양한 패션 아이템, 150여 종의 깜찍한 애완동물이 나오는 서정적 설정으로 부분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3위 '서든어택M'에 이어 4위에 오른 넷마블의 '토이토이'는 곰인형 '토토'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귀여운 곰인형 캐릭터를 움직여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이다. 인형 캐릭터와 과자 가게 분위기 때문에 어린이용처럼 보이지만 예상보다 조작이 단순하지 않아 성인 이용자들도 많이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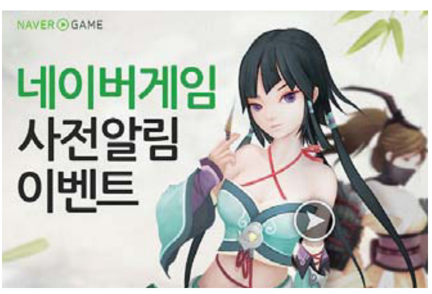
한편 NHN엔터테인먼트는 미소녀 캐릭터가 총출동하는 슬링샷 RPG '우리 공주님이 제일 귀여워'의 연말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 처음 나온 이 게임은 지난달 대만과 홍콩에도 진출했다. '우리 공주님이 제일 귀여워'는 '앵그리 버드'처럼 새총을 쏘는 듯한 방식의 슬링샷 RPG다. 캐릭터를 손가락으로 잡아 당겼다가 놓는 탄성에 의해 이용자 캐릭터가 날아가 몬스터를 공격하는 것이다. 여기에 개구리 왕자가 공주들을 구하러 다닌다는 동화적 주제와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화려한 그래픽이 더해졌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우리 공주님이 제일 귀여워'는 귀여운 캐릭터로 일본과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며 "여성 취향의 게임이라도 남성 이용자들이 여성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중소개발사 신작 홍보 걱정 끝

네이버 게임 사전 알림 이벤트



네이버의 게임 채널링 플랫폼 '네이버 게임'이 중소 개발사의 신작 게임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한다.

네이버 게임은 2010년 선보인 게임 채널링 전문 플랫폼이다. 이번 이벤트는 중소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게임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23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게임은 매달 신규 게임의 별도 이벤트 페이지를 구성하고 사전 알림 예약 신청 접수뿐 아니라 해당 게임의 세계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전 알림 신청 이용자들에게는 게임 오픈 일정 등의 게임 정보를 문자로 알리며 해당 게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과 아이템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네이버 게임은 첫 번째 사전 알림 이벤트로 엔터메이트의 웹게임 '천년도 : 신선도 천년의 이야기' 이벤트를 28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매달 신작들의 사전 알림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영 네이버 게임&앱스토어 셀장은 "사전 알림 이벤트를 통해 중소 개발사들이 게임 오픈 이전에도 큰 부담없이 자신의 게임을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네이버 게임은 개발사들의 게임 콘텐츠와 게이머들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라이엇 게임즈 EBS '문화유산 코리아' 후원

라이엇 게임즈가 제작 후원한 EBS의 '문화유산 코리아, 아름다운 한국의 세계유산' 프로그램이 24일 첫 전파를 탄다.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인기 온라임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템 판매 금액에 회사 기부금을 보태 방송 제작비를 지원했다.

EBS '문화유산 코리아, 아름다운 한국의 세계유산'은 24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낮 12시 10분에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석굴암과 불국사, 조선왕릉,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가 선정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11건을 자세히 소개한다. 첫 방송에서는 수원 화성을 집중 조명한다.

권정현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 본부 총괄 상무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용자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좋은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었다"며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프로스트 3인방' WECG 한국대표에

12월 그랜드파이널서 금·은·동 석권 노려

프로스트 3인방이 '스타크래프트 2' 한국대표로 뽑혔다.

이지스게이밍네트웍스는 e스포츠 국가대항전인 '월드이스포츠챔피언십게임즈(WECG)'의 '스타크래프트 2: 군단의 심장' 종목 한국국가대표 선발전에서 KT 롤스터의 김대엽 선수, CJ 엔투스의 김준호·김정훈 선수가 1·2·3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KT 롤스터의 김대엽 선수는 CJ의 김준호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3대 2로 승리하며 데뷔 7년만에 첫 개인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맛봤다. 이번 선발전을 통해 '애국토스'라는 별명을 새로 얻은 CJ엔투스의 김정훈 선수는 3·4위전에서 KT의 전태양 선수를 상대로 3대 0 승리를 거두며 2년 연속 한국대표 자격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한국대표가 전원 프로토스 종족 선수들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테란 종족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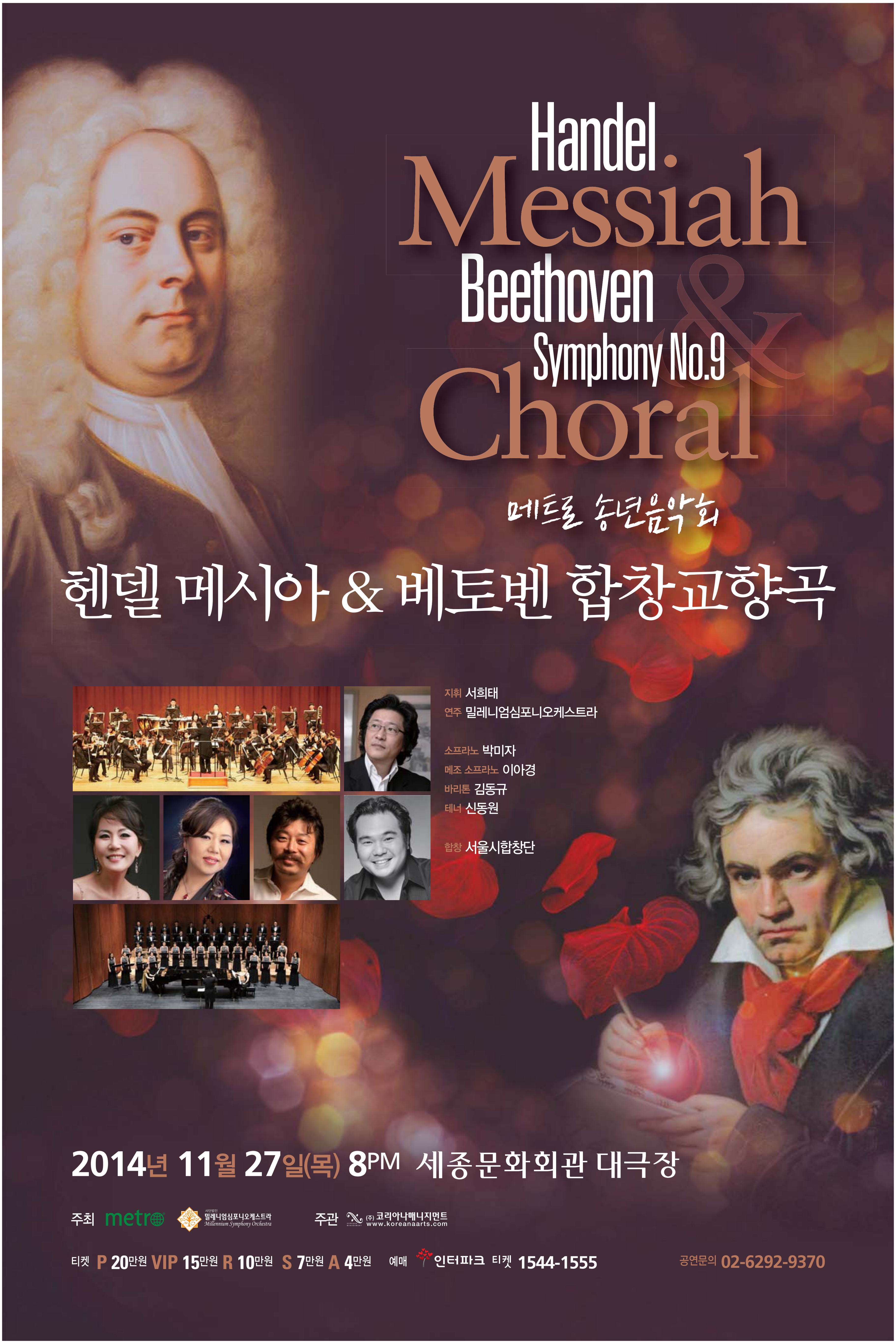
WECG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한국대표 모두 타 종족을 상대로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며 "2006년, 2009년, 2013년 단 세 번밖에 이루어내지 못한 금·은·동메달 동시 석권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7일부터는 '도타2' 종목과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 종목의 WECG 한국대표 선발전이 진행된다. 각국 대표들이 실력을 겨루는 그랜드파이널은 12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



한국대표에 선발된 CJ 엔투스 김준호, KT 롤스터 김대엽 선수, CJ 엔투스 김정훈 선수가 환호하고 있다.



Handel
Messiah
Beethoven
Symphony No.9
&
Choral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지휘 서희태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바리톤 김동규
테너 신동원
합창 서울시합창단
2014년 11월 27일(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metro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주관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돌아온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 '급피치'

여, 의원 입법 추진중 연내 처리 방침인 듯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의원 입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23일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 입법으로 하면 70여 일이 더 걸린다"며 "빨리 하려면 의원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입법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의원 입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정부 입법은 공청회→법안 입안→입법 예고→규제 심사→법제처 심사→차관 회의→국무 회의→법안 국회 접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정부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제출 이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의원 입법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의 강력한 의지 표현의 하나로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본질적으로 당·정·청의 입장이 똑같다는 말씀을 확인 드린다"며 "당·정·청이 하나가 돼 노력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 책임자로 이한구 의원을 내정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여는 등 TF를 공식 출범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거래소 방만경영 언제까지?



기자 수첩

김 현 정 <금융시장부 기자>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증권사마다 수천명씩 인력 구조조정을 한 유례 없는 업황 침체 속에서도 거래소는 '신의 직장'에 버금가는 호화복지 행태를 버리지 않았다.

국내 증시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거래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다.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빌미도 된다.

지난주 열린 거래소 국감에서는 거래소의 여전한 방만경영 행태를 꼬집는 지적이 쏟아졌다.

거래소가 직원들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사실상 휴직 기간까지 급여를 챙겨주고 각종 회의와 현장조사를 앞세워 목적이 분명치 않은 해외출장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세미나 참석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플로리드, 키웨스트와 같은 대표적인 휴양지에 다녀왔다니 뒷맛이 개운치 않다.

업무강도가 높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시각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성과에서 공공기관 중 꼴찌 수준인 거래소로선 할 말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거래소의 행태가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말 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된 데 이어 지난해 자본시장법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대체거래소 논의도 수면 위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국내 증시에 경쟁 체제는 시기상조라는 선입견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에게 돌아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거래소가 내놓는 신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갖지 않는다는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다.

거래소 직원들의 느슨한 현실 인식이 우려된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표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골든타임으로 대통령에게 염장"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퇴… 김무성호 '난기류'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23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퇴 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법을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 법안만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 시기가 있다.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다'라고 애절하게 말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개헌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김무성 체제는 출범 100일을 갓 넘긴 시점에서 예기치 않은 큰 시련을 맞게 됐다. 김 대표는 이날 김 최고위원의 사의 표명에 대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퇴인데 설득을 해서 다시 철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14 전당대회에서 비주류의 한계를 딛고 지도부에 입성한 김 최고위원이 이날 돌연 사퇴를 선언하면서 당내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사퇴 자체가 전격적인데다 사퇴의 변도 설득력이 떨어져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與 혁신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추진

●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혁신위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입법 로비 의혹' 김재윤 의원 보석 신청

●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 변호인은 22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의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달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차남 재용씨·이창석씨 항소심도 집유

●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3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는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국방부 "北 신형 소총탄 막는 방탄복 연말 보급"

국방부는 육군 특전사령부 소속 장병들에게 지급된 방탄복이 북한군의 신형 소총에 관통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을 올해 말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특전사가 보유 중인 방탄복은 파편탄·군총탄에 대해서 북한 AK-47 소총탄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재 북한이 신형으로 개발한 AK-74 소총까지 방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부터 개발을 했고, 올해 말부터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특전사에 보급한 2062벌의 다기능 방탄복이 북한 개인화기(AK-74) 총탄에 '완전 관통'돼 생명을 보호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현정기자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각계각층의 질타를 받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트로신문은 '단통법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분리공시 도입, 소비자 혜택과 무관

단통법 논란, 문제점과 대안

[글 싣는 순서]
①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라
②분리공시 도입은 이통사 배불리기?
③가계통신비 인하, 실질적 해법은

단통법 시행 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논쟁이다. 분리공시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 중 제조사가 이통사에 주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을 단통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붙였다. 하지만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분리공시가 제조사의 장려금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한 단통법(제12조 제1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결국 방통위는 단통법에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한채 법시행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가계통신비 인상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분리공시 미도입'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만일 분리공시 도입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전문가들은 분리공시가 도입돼도 소비자에게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 설명한다. 소비자의 관심사항은 휴대전화 구매시 실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이지 제조사와 이통사가 얼마씩 할인금액을 부담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분리공시가 없어도 단통법 시행만으로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모델의 지원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통사와 방통위에서 분리공시가 되면 제조사의 출고가가 인하돼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출고가는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 상황을 봐도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주요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했다.

분리공시 도입은 오히려 이통사 배불리기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분리공시로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면 이통사가 이 정보를 토대로 제조사 간 장려금 경쟁을 부추기고 압박해 장려금을 더 받아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이 규제돼 출혈경쟁도 사라지고 마케팅비용도 줄어드는데 장려금을 더 받아내면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 이처럼 분리공시 도입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통사 배불리기에만 일조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방통위 측이 분리공시가 모법(단통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시안에 포함시킨 것은 규제 대상을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까지 확장해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 도입 주장은 단통법 시행의 역효과를 핑계 삼기 위한 대안일 뿐"이라며 "지금은 방통위와 이통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분리공시에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법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조선 10경' 이서적벽 30년만에 개방 조선시대 10경으로 불렸던 전남 화순 이서적벽이 30년만에 개방됐다. 23일 오전 전남 화순군 이서면 망향정에서 '이서적벽' 개방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전남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된 붉은 기암괴석이 특징인 적벽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스마트 시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 시계 등 전자기기를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3일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기기·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전자계산기·스마트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이 끝나고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윤다혜기자 ydh@

현대차 울산 공장 불법점거 하청노조에 70억 배상 판결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폭력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총 2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다혜기자

서울시, 지하철·상가 환풍구 일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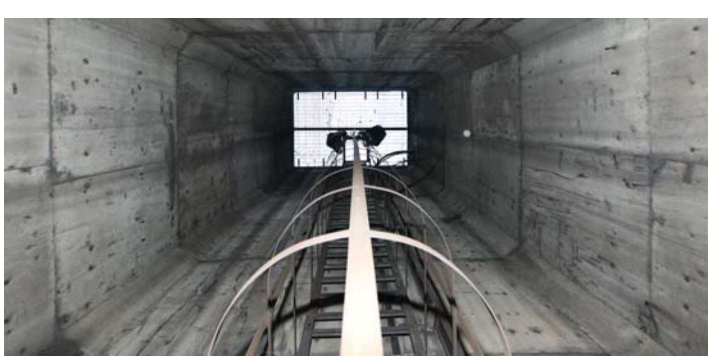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내 지하철과 지하상가 등 환풍구를 23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철·공동구·공영주차장·일반건축물부설주차장·실외공연장 등 시설마다 2개씩 총 10개의 환기시설을 표본으로 추려 실태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은 건축·토목·전기·기계 소방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이 한 조가 돼 시행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하철(2418개), 공동구(252개), 지하도 상가(71개), 주차시설(10개) 등 총 2851개의 환기시설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23~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청소년시설·단체 등 150개 기관이 참여해 '상상·진로·창의·참여·건강' 등 5개 주제관으로 구성된 240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카누체험 프로그램과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해 볼 수 있는 음원녹음스튜디오 체험, 방송중계차를 활용한 아나운서 체험 프로그램, 박람회장에서도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천체투영관 프로그램 등도 준비됐다.

또한 박람회장 내에 마련된 포럼장에서는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멘토 특강, 부모를 위한 자녀와의 소통방법, 청소년 경제교육 등도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www.youthexpo.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Для блондинок с
розовый противо
Удивили. На
выставке пре
гламурный ак
для защиты д
настоящие га

metro France


sprinteur gagne sa course
nétro

지하철과 달리기 시합해 이겨

최근 프랑스의 단거리 경주 선수 크리스토퍼 좀보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다. 동영상엔 그가 리옹의 한 지하철과 달리기 시합을 벌이는 과정이 담겼다. 이 영상은 크리스토퍼가 지하철 안에 서있는 것부터 시작된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그는 다음역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 480m 떨어져 있는 다음역을 향해 지하철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이다. 400m 달리기 선수인 그는 1분 39초만에 다음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타는데 성공했다.

metro Nicaragu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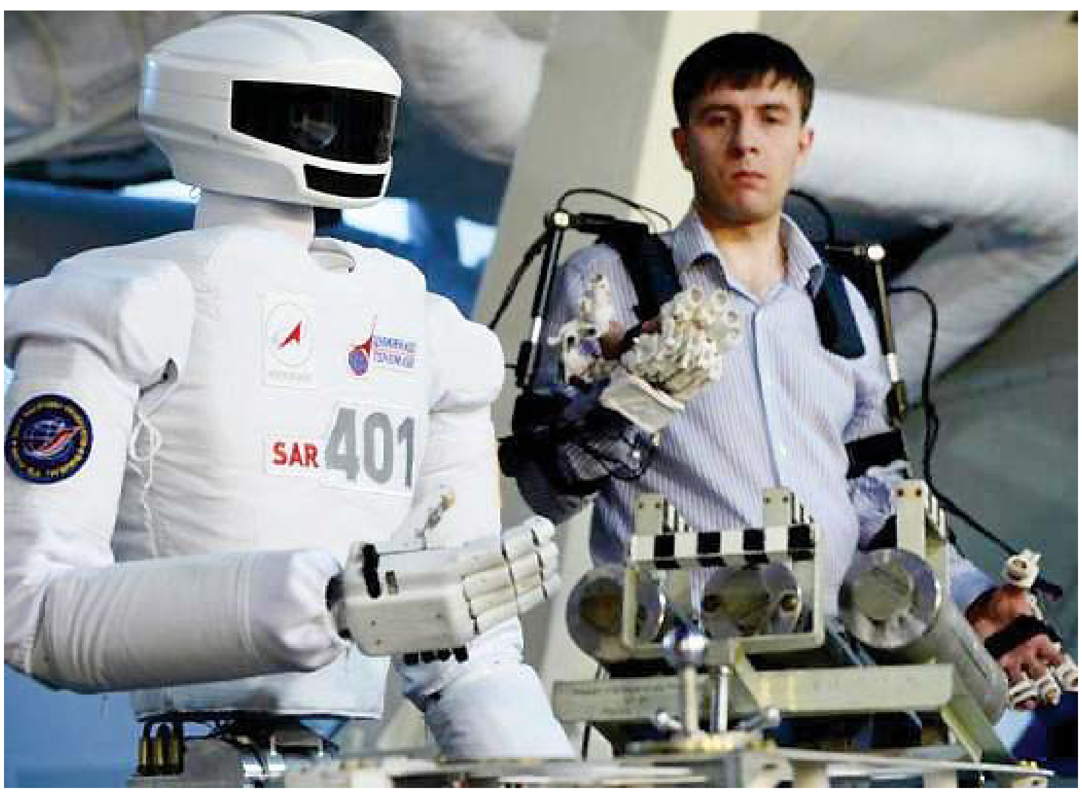

Estudios evidencian temores
que viven niñas y adolescentes

여학생 화장실 사용 공포증

니카라과 여학생들이 학교 화장실 이용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어린이 원조단체인 '플랜 인터내셔널' 니카라과 지부는 최근 737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화장실에 전혀 가지 않거나 가끔 한 번 간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화장실에 불량 학생들이 들어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할때가 많고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밝혔다.

가제트 '로봇 팔'·분홍색 방독면

군사전시회 이색 제품 등장 눈길…최첨단 기능에 패션 요소 가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베데엔하 전시장에서 제18회 군사·안전용품 전시회 '인터폴리테크'가 열렸다. 전시회에서 관람객은 폭탄제거용 '로봇 팔' 등 다양한 군사·안전용품을 체험할 수 있다.

로봇 팔 제작업체 '안드로이드나야 테흐니카' 관계자는 "로봇 팔은 사람이 팔에 착용하는 소형 로봇 형태"라며 "로봇의 끝 부분에 폭탄 제거에 필요한 모든 장치와 센서가 장착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로봇 팔은 만화영화 가제트의 로봇 손과 비슷하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를 척척 해결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로봇 팔은 사용자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면 그 물체를 곧바로 스캐닝한다. 이후 물체의 무게와 표면 재질, 상태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 화면에 전달한다. 폭탄 제거 용으로 개발됐지만 구조 장비 등으로 쓸 수 있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로봇 팔과 함께 전시회에서 가장 화제가 된 전시품은 분홍색 방독면이다. 첨단 기능은 물론 21세기 패션 요소까지 가미돼 눈길을 끌었다.

방독면 제작업체 탐보프마쉬 측은 "분홍색 방독면에는 미세 필터가 장착돼 있다. 기존 방독면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발발해도 여성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분홍색 방독면을 개발했다"며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다른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분홍색 방독면은 실제로 내년부터 모스크바 지하철 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려한 색상 덕분에 구조대가 방독면 착용자를 신속히 발견,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반 골로브첸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HongKong


胡潤內地女富豪榜
廿幾歲都列於其中

최고 여성 갑부 33세 양후이옌

중국 부자연구소인 후룬(胡潤)연구원이 최근 '2014 후룬여성부호순위'를 발표했다.

비구이위안그룹 이사회 부의장인 양후이옌(33)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여성 갑부의 명예를 거머쥐었다. 보유 자산은 440억 위안(약 7조5706억 원)이다. 양후이옌은 비구이위안그룹 창립자 양궈창 회장의 둘째 딸이다.

자산 50억 위안(약 8603억 원) 이상의 여성 부호 50명을 선정한 이번 순위 대상의 평균 보유 자산은 지난해보다 14% 증가, 109억 위안(약 1조875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억 위안(약 1조7206억 원) 이상을 보유한 여성은 17명이며 자수성가로 부를 축적한 여성은 35명이다.

후룬여성부호순위 첫 발표 이후 9년간 매년 평균 30%의 신예 부호가 순위에 올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명 많은 15명의 새로운 여성 부호가 등장했다.

가장 많은 여성 부호를 배출한 지역은 선전시로 9명이었고, 이 중 2명의 여성 기업인은 10위 안에 들었다.

올해 여성 갑부의 평균 연령은 48세다. 80년대 출생자가 4명, 90년대 출생자가 1명 포함돼 있다. 선전의 지카이팅은 24세의 나이로 가장 어린 여성 부호로 꼽혔다. 올해 처음 순위에 오른 그는 80억 위안(약 1조3764억 원)의 자산으로 25위를 차지했다.

지카이팅은 부동산기업 로건 홀딩스의 최고경영자 지하이펑의 딸로 현재 회사에서 비상근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 공동설립자 더스틴 모스코비츠(29)를 제치고 세계 최연소 갑부에 올라서기도 했다.

/정리=조선미기자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단지’ 건설

LG, 2020년까지 4조 투자… 전자·화학·통신분야 등 인력 집결

LG그룹이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연구단지인 ‘LG사이언스파크’ 기공식을 갖고 본격 건설에 나선다.

LG는 23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LG사이언스파크’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또 구본무 LG 회장과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LG 최고경영진을 포함해 500여명이 참석했다.


LG사이언스파크 조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개획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자·통신·에너지 연구 기술 집결

사이언스파크는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약 5만3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111만여㎡(약 33만7000평) 규모로 연구시설 18개 동이 들어선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기존 LG그룹에서 가장 큰 연구소인 LG전자 서초R&D캠퍼스의 약 9배다. 그룹 본사 사옥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2배 규모다. 사이언스파크에는 LG전자와 디스플레이, 이노텍, 화학, 생활건강, 생명과학, 유플러스, CNS 등 10개 계열사의 선행연구 조직이 2017년 1단계 준공 후 입주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약 4조원이 투자되며 완공 후에는 전자·화학·통신, 에너지·바이오 분야의 2만5000명 연구인력이 집결해 융복합 연구 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시장선도 제품과 차세대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LG그룹의 첨단 R&D 메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을 융복합해 차별적인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첫 삽을 뜨는 사이언스파트를 중심으로 수만명의 다양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육성해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언스파크를 서로의 지식을 모으고 녹여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뛰어난 인재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언제 어디서나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생각을 스스럼 없이 나누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D 역량 강화로 선도

LG그룹은 중소·벤처기업과의 R&D를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와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협력관계가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신기술 인큐베이팅 등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R&D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LG 관계자는 “마곡지구는 90년대까지도 논과 밭이었지만, 이제 여러 기술과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가치를 만들어 내는 ‘꿈의 융복합 연구 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 ‘파워봇’ 출시 두달 만에 4천대 판매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파워봇’이 청소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워봇이 출시 두 달 만에 국내 판매 4000대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보다 60배 강한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탑재한 삼성 파워봇은 쓸어담는 기존 로봇청소기(자사 기준)와 달리 진공 흡입 방식이 가능해 강력한 흡입력을 구현한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출시 두 달 만에 4000대 이상 판매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 새로운 고성능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구매고객들은 삼성 파워봇의 강력한 흡입력 외에도 리모컨에서 나오는 불빛을 따라가며 청소하는 ‘포인트 클리닝’ 등 파워봇 특유의 재미있는 기능과 사용 편의성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고성능 프리미엄 로봇청소기를 표방한 파워봇은 판매가격이 모델에 따라 109만원과 119만원이다.

/양성운기자



‘한국의 미’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나흘째인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정부 주최 선거오찬에서 한복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통사, 고객혜택 강화 나섰다

가입비 폐지·신규 요금제 출시 등 대책 내놔

정부의 압박이 통한 것일까.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실질적 고객 혜택 강화에 본격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고 주요 단말기 지원금을 올렸다. SK텔레콤은 우선 고객이 가입 시 부담하던 1만1880원(VAT포함)의 가입비를 다음달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약 920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갤럭시 노트4 지원금을 최대 22만원(기존대비 10만9000원 상향)으로 상향 조정했다.

KT 역시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할인되는 ‘순액요금제’를 이르면 12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제로(0)클럽’과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변 프로그램 ‘U클럽’ 등 서비스를 내놨다.

‘0클럽’은 휴대전화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는 중고폰 가격 보상, 추가로 18개월 뒤 휴대전화 반납을 조건으로 신규폰의 중고 가격을 미리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U클럽’은 12개월 이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한 고객이 이용기간 동안 누적 기본료 7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쓰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과 단말 지원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이재영기자 ljy0403@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1931.65	(−5.32)
코스닥	564.31	(−0.21)
금리(국고채 3년)	2.22	(−0.02)
환율(원·달러)	1056.10	(+4.70)

뉴스&뉴스


부채춤 추는 로봇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로봇산업협회, 로봇산업진흥원 주관으로 23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4 로봇월드에서 로봇이 부채춤을 추고 있다. /뉴시스

두산 ‘봉사의 날’ 개최

●두산은 24일 전세계 사업장에서 동시에 ‘Doosan Day of Community Service’(두산인 봉사의 날) 행사를 연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 행사는 13개국 130사업장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용만 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각자 하게 될 일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전세계 두산인이 같은 날 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이라며 “두산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

SK, 파라자일렌 생산

●SK종합화학이 일본 최대 에너지기업인 JX에너지와 합작해 건설한 울산아로마틱스 공장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SK종합화학과 JX에너지는 이날 울산광역시 SK울산콤플렉스에서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 기무라 야스시 JX에너지 회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등 양사 관계자와 김기현 울산시장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아로마틱스 준공식을 열었다.

울산아로마틱스 공장에서 생산된 파라자일렌과 벤젠의 95%는 중국 등 해외시장에 수출된다.

/김민준기자 mjki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수은, 부실채권 5년간 1조 급증

선박·건설 등 거래기업 경영 악화 영향

수출입은행의 경영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전성 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의 고정이하여신 금액이 2012년 5550억원에서 지난해 1조3766억원, 올해 9월에는 1조747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고정이하여신이 5년간 1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66%에서 1.51%, 1.75%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6월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인 1.73% 보다 높은 수준이다.

손실 흡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9월말 기준 117.7%로, 지난해 말의 206.5% 보다 88.8% 포인트 떨어졌다.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이 하락한 것은 그만큼 수은의 손실 흡수 능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수은의 건전성 악화는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돼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끼쳤다.

또한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여신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수은의 특성도 건전성 악화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진단된다.

수은의 경우 선박, 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여신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별 고정이하여신 규모를 보면 선박 부문이 1조11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플랜트 부문도 2282억원에 달했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이 시작돼 고정이하로 분류된 기업에 다시 신규 자금을 집행한 금액도 올 한 해 36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388억원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은 "경기침체로 업황이 악화되니까 경기민감 업종에 많은 여신을 집행한 수은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수은 역시 정부가 어떻게든 이를 보전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여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윤종규號 '인사 태풍' 예고

KB, 국민은행장·계열사 대표 등 '물갈이' 클 듯

윤종규(사진) 전 KB금융 부사장이 KB금융을 이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국민은행과 각 계열사에 대규모 '인사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수장이 바뀌면 대규모 인사가 이어지는 것은 수순이다. KB는 그동안 극심한 내홍 사태를 겪어온 만큼, 인사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은 이건호 전 행장의 사임 이후 박지우 부행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후임 국민은행장 후보로 부행장들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현 국민은행 부행장은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지우 부행장(영업본부)을 비롯해 홍완기(신탁본부)·백인기(고객만족본부)·이홍(기업금융본부)·오현철(여신본부)·민영현(HR본부)·박정림(리스크관리본부)씨 등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KB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윤웅원 KB지주 부사장이 유력 행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국민은행 재무관리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지낸 김진홍 KB생명보험 대표이사도 은행 내부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행장과 윤 부사장은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꼽힌다.

다만 박 부행장은 최근 주 전산기 교체 갈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점, 윤 부사장 역시 KB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영진 KB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회의 직후 "회장·행장 겸임 여부는 윤 후보와 이사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새 행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하면 윤 내정자와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KB금융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도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8월말 임기가 만료됐던 정회동 KB투자증권 사장 등 KB금융 계열사 대표이사 4명은 KB 사태로 임영록 당시 회장이 중징계 대상에 오르는 등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대부분 유임됐다.

현재 KB인베스트먼트(사장 남인), KB데이타시스템(사장 박중원)이 연말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KB저축은행(사장 차순관), KB국민카드(사장 김덕수)의 대표이사가 각각 내년 1월과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유임된 KB 계열사 대표이사 4명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앞두고 있지만, 윤 내정자의 의지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신한銀 '미니콘서트' 신한은행은 직접 고객을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는 'S-Music 미니콘서트'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첫 번째 미니콘서트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려 병원 근무 직원과 장병들에게 전달됐다. /신한은행 제공

대신, '불스 투자대회' 종목 공개

대신증권은 '2014 대신 불스(Bulls) 투자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의 매매데이터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회 참가자 중 각 리그 상위 10명의 거래종목과 단가, 보유종목 등 상세한 내역을 10분 후 투자자들에게 알려준다.

각 리그에 참가한 투자자들의 거래량·수익금 상위종목도 제공한다.

각 리그별 자주 거래되는 종목과 수익률이 높은 종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 1억 리그에서는 필명 '독고탁'으로 알려진 참가자가 55.49%(22일 기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3000 리그에서는 필명 '삼정자'가 51.11%, 500 리그에서는 필명 '라벤더'가 120.12%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다음달 21일까지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에서 계좌개설을 한 뒤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HTS, MTS 등에 접속하면 된다. 대회 기간은 오는 12월 5일까지다.

김경찬 대신증권 스마트금융본부장은 "대회 시작 9일차에 접어들었다"며 "각 리그 상위 10명은 모두 20%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린 고수들인 만큼 이번 매매데이터 제공 서비스는 주식 초보자와 대기 중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LIG손보·우리아비바 M&A 희비 엇갈려

LIG손해보험과 우리아비바생명이 인수·합병(M&A)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아비바는 당초 농협에 매각된 지 두 달 만에 대구은행 지주사인 DGB금융에 넘어갔지만 매각작업은 착실히 진행 중이다. 반면 당초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LIG손보는 KB금융지주에 매각까지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은 이달 말까지 우리아비바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실사는 지난달 5일 농협금융지주로부터 우리아비바 인수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DGB금융은 이번 실사를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주주변경 신고 후 잔금 정리가 끝나는 1월 중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아비바는 지난 6월 말 농협에 매각된 지 두 달 만에 DGB로 인수자가 바뀌면서 혼란이 있었지만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이 변액보험 판매를 위해 우리투자증권,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패키지로 사들였던 것과 달리 DGB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계열사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어 또 다시 주인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반면 KB금융이 인수하기로 한 LIG손보는 당초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KB금융은 지난 6월 27일 LIG그룹이 보유한 LIG손해보험 지분 19.47%를 6850억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주전산기 문제로 촉발된 임영록 전 KB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금융위가 이달 정례회의에서 LIG손보 인수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KB금융의 경영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안건 처리를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인수절차가 올해 안에 처리될 지 불투명하게 됐다.

/김형석기자 khs84041@



그래도
살만한
인생
tvN 주년 특별기획
미생
未生
임시완 | 이성민 | 강소라 | 강하늘 | 김대명 | 변요한
기획 tvN 제작 N°3 NUMBERTHREE PICTURES
오늘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中시장 뚫자" 후강퉁 출범 앞두고 '분주'

증권사들, 리서치 강화·HTS 통해 투자자 선점 나서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후강퉁 제도의 이달 내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앞다퉈 투자자를 선점할 채비에 나섰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최근 동양증권을 인수한 대만계 유안타증권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대만 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화권에 가장 정통한 증권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방침이다.

후강퉁 투자에서 유안타증권의 가장 큰 장점은 대만 본사로부터 상하이와 홍콩 등 중화권 전체를 아우르는 리서치 역량이다.

유안타 측은 65명의 현지 리서치 인력이 생산하는 보고서 등을 활용하면 중국 시장 분석에 국내 여타 증권사에 대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나대투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통 리서치 인력 4명 이상을 활용해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지난 17일 후강퉁 종목의 시세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투자정보 제공 측면은 중국 대형 증권사인 자오상증권과 제휴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도 중국의 유력 증권사 하이퉁증권과 협력 관계를 맺고 하이퉁의 종목 분석자료를 매주 배포한다.

한국투자·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도 상하이A주 전 종목을 소개하는 방대한 분량의 편람과 같은 자료를 발간하고 주간·월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유안타·하나대투 등 증권사 3~4곳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투자자들이 손쉽게 중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후강퉁은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 조치의 하나로 중국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홍콩에서 중국 본토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후구퉁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강구퉁으로 나뉜다.

후강퉁의 투자 대상은 중국 상하이 A주 중 우량기업 568개 종목이며 강구퉁은 항셍대형주지수 등에 편입된 250개 기업이다.

후구퉁 총액한도는 3000억 위안, 하루 한도는 130억 위안이고 강구퉁은 총액한도는 2500억 위안, 하루 한도는 105억 위안 수준이다.

후구퉁 투자 대상은 상하이종합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한다. 강구퉁의 경우 항셍지수의 80%에 달한다. 사실상 중국 상하이 A 시장이 거의 모두 외부에 개방되는 셈이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곳은 후구퉁이다. 중국 주식의 저평가 매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됐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은 생소한 곳이 많고 기업 정보가 국내처럼 매일 제공되진 않기 때문에 펀더멘털(가치평가)이 좋은 기업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KB카드 '수능 맞이' 이벤트

KB국민카드는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을 위해 '수능 맞이 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내달 23일까지 열리는 대학 등록금 행사는 KB국민카드(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선불카드 제외)로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등록금은 캐시백 형태로 제공되며, KB국민카드는 모두 2015명을 추첨해 1등(5명) 등록금 300만원과 2등(10명) 등록금 150만원, 3등(2000명) 포인트리 1만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12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패밀리레스토랑과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 혜택도 준다.

고객은 행사 응모 후 KB국민체크카드(KB국민 비씨플러스카드, KB국민 기업체크카드, KB국민 프리패스카드 제외)로 결제 시 패밀리레스토랑,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제과·아이스크림점에서 1일 1회씩,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번 행사 행사 응모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 출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3일 가족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상해·비용·배상책임 등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화재·지진·풍수재해 등 주택과 관련한 위험 등 일상 생활 속 각종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제공

은행연, 휴가보상금 1인 600만원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휴가보상으로 1인당 평균 6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올해 은행연합회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21.4일의 연차휴가 중 20.8일 가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전년도인 2012년에도 21.9일중 0.8일만 휴가를 냈다.

덕분에 직원들은 2012년 566만6000원, 2013년 591만2000원을 보상받았고 연합회가 지급한 돈은 2년간 15억원에 달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매년 초에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해 올해만 이미 7억6000만원을 직원들에게 줬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매년 7000만원 가량을 휴가 보조비로 정액 지급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52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측은 "직원 복지기준은 은행권 평균에 맞춘 것"이라며 "금융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백아란기자

신성호 IBK증권 사장 "10위 진입이 목표"

신성호(사진) IBK투자증권사장은 23일 임기 내에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업계 10위내 진입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말까지 5~6곳을 더 코넥스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자본잠식을 탈피한 데 이어 올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00억원대 당기순이익 달성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IBK투자증권의 ROE는 1.4%로 업계 20위 수준이다. 지난 8월 취임한 신 사장은 임기 2년 안에 1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 사장은 ROE 10위 진입과 함께 고객 중심 영업기반 확대, 공부하는 조직문화 정립 등을 3대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창립 7년차를 맞은 IBK투자증권이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수익성을 개선했다. 향후 더 높은 도약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사장은 IBK기업은행 계열사로서 중소·중견기업 고객 기반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에 주력하고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에서 선두 역할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신 사장은 "IBK투자증권이 주도한 금호산업 구조조정 거래는 증권사가 주도한 사모투자펀드(PEF) 거래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인수·합병(M&A), PEF 부문을 더욱 키워 대기업 고객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주도형 학습문화를 통해 직원 개개인 역량을 강화해 고객이 요구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교육과 제도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투자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사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대우증권 투자전략부장,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장, 금융투자협회 경영전략본부장,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우리선물 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현정 기자

동부제철-채권단 경영정상화 합의

김준기 회장 대표직 사퇴… 24일부터 지원자금 투입



동부제철과 채권단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동부제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22일 자로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상화 방안에는 알려진대로 신규자금 6000억원 투입과 채무상환 유예, 53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 회생방안이 담겼다. 특히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100대 1로 차등 감자하기로 해 김 회장은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 동부 측은 김 회장이 동부제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김 회장에 대한 예우 문제를 약정에 포함하지 않았고, "향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날 임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약정 체결 소식을 전하고, 동부제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동안 회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며 "비록 지금은 여력이 없어 동부제철을 도울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언제라도 여건이 허락되면 모든 것을 바쳐서 동부제철과 여러분을 지원하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약정 체결에 따라 채권단은 신규지원 예정자금 가운데 일부를 당장 24일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철강산업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던 동부제철은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패키지로 매각하려고 했지만, 매각이 무산되자 지난 7월 7일 채권단과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현대미포, 포스트파나막스급 선박 첫 인도 현대미포조선은 23일 울산 본사에서 확장공사중인 파나마 운하 폭에 맞춘 친환경 포스트 파나막스급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명명식을 열었다. /현대미포조선 제공

대단위 아파트 분양 봇물

브랜드·입지·편의시설 3박자 갖춰

9·1부동산대책 이후 신규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입지, 편의시설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의 연내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제외, 오피스텔 포함)은 15개 사업장 총 2만7827가구 중 2만436가구가 일반분양될 것으로 조사됐다.

대단지 아파트는 대체로 교통과 학군, 편의시설 등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단지 주변으로 각종 상업·문화·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가구 수가 많아 임대수요도 풍부하고 관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도 있다.

GS건설이 10월 서울 중구 만리동 2구역을 재개발 해 공급하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5층 14개동, 전용면적 72~84㎡ 총 1,341가구 중 41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서울지하철 1·4호선, 인천공항철도, 경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단지 인근에 손기정 체육공원, 롯데마트·롯데아울렛(서울역점), 롯데백화점(본점), 신세계백화점(본점), 인제대 서울백병원, 남대문 시장 및 종로 등에 위치한 쇼핑문화 시설이 있다.

삼성물산이 11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39번지 일대 신길7구역을 재개발 해 공급하는 '래미안 에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19개동, 전용면적 39~118㎡ 총 1722가구 중 78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상도로, 여의대방로, 노들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관악점), 타임스퀘어, 이마트 신도림점, 디큐브시티,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보라매병원,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현대건설이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6-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영통'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9층 21개동, 전용면적 62~107㎡ 총 2140가구로 구성된다. 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덕영대로, 봉영로,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수원IC,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영통점), 롯데마트(영통점, 권선점), 갤러리아백화점, 이마트(수원점), 태장마루도서관, 태장동주민센터, 망포공원, 박지성축구센터, 수원시어린이교통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해외직구로 1년에 87만원 쓴다

대한상의, 소비자 75% "해외쇼핑 늘리겠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직구족의 연평균 소비액이 8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년간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중 현지서 쇼핑을 해봤다는 해외쇼핑족 700명을 대상으로 '내국인 해외쇼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밝혔다.

해외직구와 별개로 해외여행중 현지 백화점, 아울렛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는 해외 오프라인 쇼핑족들(548명)은 1인당 96만5000원을 해마다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해외여행 확대와 해외직구 열풍으로 해외쇼핑 지출액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절대적인 금액뿐 아니라 전체 쇼핑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해외쇼핑족은 전체 쇼핑지출액의 17.6%를 해외 현지 매장이나 온라인 직구로 소비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전체 쇼핑지출액에서 해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변화에서도 전체 해외쇼핑족의 65.6%가 '해외쇼핑 비중이 늘었다'고 답했고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7.3%에 그쳤다.

해외쇼핑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해외쇼핑을 늘릴 것인지를 묻자 응답자의 74.9%가 '그렇다'고 답했고 '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77.0%에 달했다.

해외쇼핑시 주로 구입하는 상품에서 남성은 '의류'(26.1%) '시계·선글라스 등 악세사리'(19.6%) '화장품'(13.9%) '가방·지갑'(12.1%) '가구·전자제품·서적'(12.1%) 순이었다. 여성은 '화장품'(26.0%) '가방·지갑'(16.4%) '시계·선글라스 등 악세사리'(15.5%) '의류'(13.1%) '건강식품'(11.7%) 등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기자 zen@

어린이집 창업 위한 무료 설명회

프리미엄 어린이집 브랜드 빅스맘은 어린이집 창업설명회를 11월 11일 오후 1시30분 용인포은아트홀(죽전역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에서 연다.

어린이집창업설명회는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자로서 뜻깊은 길을 가고자 하는 창업희망자에게 ▲어린이집 창업에 필요한 자격요건 ▲인허가 ▲운영기준 ▲프로그램 ▲입지선정 ▲수지분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창업희망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1부는 '창업의 시대' 저자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위한 6가지 원칙', 2부는 어린이집 창업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안내, 3부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브랜드 어린이집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창업후 5년내 전체 자영업 평균 생존율이 30%대에 그치는데 반해, 90%에 가까운 생존율을 보이는 업종인 어린이집에 대한 창업희망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어린이집 창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설명회가 될 전망이다.

참가신청은 전화 1661-2443 및 이메일 hellojk-sim@konal.co.kr로 하면 된다. 접수는 10월20일~11월08일, 참가비는 무료다. /김태균기자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 74 틈새평면 거실.

틈새 평형이 '주력' 평형으로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한 84㎡와는 달리 74㎡A는 4.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GS건설이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에서 분양한 '광교산 자이' 역시 84㎡는 미달된 반면 78㎡는 1.3대 1로 마감됐다.

이처럼 국민주택 규모 중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84㎡를 제치고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은 74㎡와 78㎡는 틈새평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84㎡와 비슷하면서 가격은 저렴해 인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간 비주류로 인식되던 틈새평형이 최근 들어 주력평면으로 거듭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소형, 84㎡ 중형, 114㎡ 대형으로 이뤄진다. 틈새평형이란 소형과 중형 사이, 중형과 대형 사이에 끼어 있는 주택형을 말한다. 초기 69㎡, 72㎡, 76㎡ 등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던 것이 올 들어서는 99㎡, 102㎡와 같은 중대형으로도 확대됐다.

특히 1~2년 전만 해도 분양성이 확인 안 됐다는 이유로 50가구 안팎의 일부 세대에만 적용됐다면 요즘에는 전체 가구수의 절반 또는 전부가 틈새평면으로 구성되고 있다.

계약 사흘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운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센트로엘'이 95㎡와 98㎡로 설계됐고, 평균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위례 호반베르디움'은 아예 1137가구 모두를 97㎡로 만들었다.

오는 11월 경기도 용인 구성역 인근에서 공급되는 '용인 구성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역시 총 296가구 가운데 61㎡가 162가구, 74㎡가 49가구다. 전체의 70%가 틈새평형으로 설계됐다.

경북 안동 태화동의 'e편한세상'도 59㎡ 133가구와 함께 70·71㎡ 288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 고양 삼송택지지구의 '고양 삼송동일스위트1차'는 전체 968가구 중 66㎡와 76㎡가 각각 260가구, 294가구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틈새평형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면 소형은 중형, 중형은 대형과 같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의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전형적인 59㎡, 84㎡, 114㎡보다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정보기술〉

IT 업종, 3분기 깜짝 실적

LG디스플레이 양호한 성적… SK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국내 IT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가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는 성과를 내놨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실적발표로 시장에 충격을 준 상황에서 부품업체들도 힘들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까지 예상을 뒤엎는 실적을 발표해 전망을 밝히고 있다.

22일 IT업계에서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한 LG디스플레이는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확대와 TV용 패널 가격의 강세에 힘입어 3분기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3분기 474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3분기보다 21.8%, 전 분기보다는 190.7% 증가했다. 이로써 LG디스플레이는 10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이어갔다. 3분기 매출액은 6조5469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0.5% 줄었으나 전 분기보다는 9.5%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3541억원,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은 1조2949억원, EBITDA 이익률은 20%를 나타냈다.

특히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주요 고객사의 모바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혜가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3일 매출액 4조3120억원, 영업이익 1조3010억원, 순이익 1조950억원으로 전 부문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30%를 돌파했고, 순이익률은 25%에 달했다.

모바일용 제품 판매 호조와 윈도XP 지원중단에 따른 PC교체 수요 등에 힘입은 D램과 낸드플래시의 견조한 수요, 제품 전반의 미세공정 비중 확대에 따른 원가경쟁력 강화 노력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SK하이닉스는 올 4분기에도 D램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낸드플래시 부문의 실적 개선 등으로 이 같은 호실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SK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공정 전환 등으로 원가를 절감해 수익성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분기 D램 출하량은 2Y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서버용·모바일용 제품을 확대해 약 10% 중반 수준으로 늘릴 것"이며 "낸드플래시는 1X 나노미터 공정으로 전환해 20% 중반의 출하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품계열사들이 3분기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완제품 업체인 삼성전자(30일)와 LG전자(29일)의 실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중국 쑤저우에 '아름다운 교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중국 쑤저우에 있는 완핑학교 분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아름다운 교실'을 선사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강서 힐스테이트' 특별 분양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해 특별한 조건으로 새 주인맞이에 나섰다. 강서 힐스테이트는 지하 3층~지상 21층 37개동 전용면적 59~152㎡ 2603가구의 매머드 급 대단지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128㎡와 152㎡ 일부 세대를 분양한다.



강서 힐스테이트가 들어선 곳은 수요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화곡3주구 자리다. 바로 옆 화곡2주구는 2518세대의 '우장산 아이파크 e편한세상'으로 7년전 옷을 갈아입었다. 화곡1주구도 2198세대의 '우장산 힐스테이트'로 10년전 탈바꿈했다. 이밖에 '우장산 롯데캐슬(1164가구)' '화곡 푸르지오(2176가구)' 등 주변 지역에 1만여 가구의 빅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이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강서로, 화곡로는 물론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등을 이용해 도심 및 수도권 내 외곽지역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홈플러스(가양점), 이마트(가양점), 이마트(신월점), 재래시장인 송화시장이 인접해 생활편의성이 좋고, 산책로인 둘레길 및 체육시설이 풍부한 우장산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분양사무실은 강서 힐스테이트 단지내 상가에 있으며, 계약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다. /김두탁기자

산업단지 면세 100%에서 25%로

전경련 "중소기업 부담 커져" 감면유지 건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기업에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5년 1월부터 25%만 감면하는 걸로 바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업의 지역투자와 지역이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감면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경련은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은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를 내야 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증축하는 기업들도 토지 및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1.8% 올라가고 입주기업의 투자비용도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140.8㎢)이 여의도 면적(8.4㎢)의 16.7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입주 수요를 더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울산·전북·전남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가 지역내 총생산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

그때의 터줏대감은 지금 어디에…



권기봉의 **도시산책** <99>

거대한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들어선 서울 황학동 일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아저씨가 먹으면 요강이 깨진다'는 정체 모를 약을 파는 약장수와 도대체 쓸 데가 있을까 싶은 고물을 파는 상인, 철 지난 성인비디오와 신용불량자도 개통 가능하다는 핸드폰을 어지럽게 진열해놓고 파는 이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 공사와 함께 시작된 주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황학동 골동품 시장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두고 자연하천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는 이들은 없었다.

황학동 일대를 답사하다 만난 '민속골동'이라는 골동품 전문상점의 김정남 사장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30년째 만물상을 운영해오고 있던 그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선박회사에서 일하다 1972년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황학동에 터를 잡았다고 했다. 그는 미술책과 역사책들을 섭렵하며 '대학교수'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고서적과 골동품 연구에 몰두했고 우여곡절 끝에 내로라 하는 골동품 전문상점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그때의 김 사장은 이제 황학동에 없다. 그의 가게가 있던 건물도 사라져버렸다.

물론 근처에 도깨비시장이 다시 들어섰고 청계천 너머 동묘 근처에서 벼룩시장이 열리고는 있지만, 이전과는 달리 번듯한 건물에 들어가 장사를 하는 이들은 훨씬 적어보인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상가 임대료가 덩달아 상승한 탓이다.

김 사장이 진열장 속 깊은 곳에서 꺼내 보여준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 좀 해다오. 얼마나 고달프고 슬픈 날이 많은지. 배가 고파 울고, 외로워 고독하여 울고, 무서워서 떨고, 추워서 떨고, 괄세 받아 북받치던 옛날이 곧 오늘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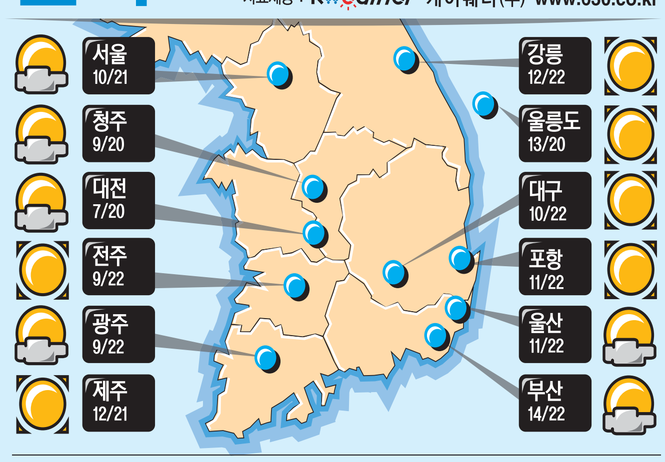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흘렀다. 그런데 서민들의 삶은 그제나 저제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날씨

10/24 金 일출시각 06:48 일몰시각 17:4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단풍구경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가을철 발열 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에는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야외활동 후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6		7		3	
		1	5	8			9	
						6		
		9	2					4
			9		1			
4					6	8		
		8						
	2			7	4	5		
	3		1		9		7	

9				4	1		6	
4				8	3		9	
						3		
1		2	3					8
				1				
3					5	1		2
		7						
	5		4	3				6
	1		9	2				4

스도쿠 정답

8	9	2	6	1	7	4	3	5
6	4	1	5	8	3	7	9	2
3	5	7	4	9	2	6	8	1
7	6	9	2	3	8	1	5	4
2	8	5	9	4	1	3	6	7
4	1	3	7	5	6	8	2	9
1	7	8	3	2	5	9	4	6
9	2	6	8	7	4	5	1	3
5	3	4	1	6	9	2	7	8

9	3	5	2	4	1	8	6	7
4	6	1	7	8	3	2	9	5
7	2	8	5	6	9	3	4	1
1	9	2	3	7	4	6	5	8
5	7	6	8	1	2	4	3	9
3	8	4	6	9	5	1	7	2
8	4	7	1	5	6	9	2	3
2	5	9	4	3	8	7	1	6
6	1	3	9	2	7	5	8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친구가 고철수집 같이 하자고 제의 동업 아닌 일을 도와주며 배우도록

Q hynin 남자 78년 6월 15일 양력 자정

중소기업에서 총무업무를 하다가 회사가 외국기업에게 합병되는 바람에 그만두고 나와서 여러 가지로 세월을 보내다가 현재는 생활설계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점점 늘어 가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이나 직종이 마땅한 것이 없어 고민입니다. 자본이 충분 한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공도 없으므로 앞길을 헤쳐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많아 잘 지내고 있으나 진로에 대해서 의논대상이 없었는데 우연히 한 친구가 고철 수집을 같이 하자고 제의가 들어 와서 생각 중입니다. 이일이 저에게 맞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명리(命理)에서 좋은 사주(四柱)를 정의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신기(精神氣)세자의 구비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첫째 정(精)이란 사주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기운을 말하는데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아 지원세력과 같습니다. 귀하 사주에서는 정의 기운이 부족합니다. 그런 연유로 살면서 내세울만한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운명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주팔자와 직업은 연, 월, 일, 시에 따라 정할 수가 있는데 사주팔자 속에는 많은 것이 숨어 있지만 평생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가름하는 것 뿐 아니라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한 가지 기정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동업을 하면 같이 투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동업자의 말을 따라야하며 그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남까지 손해를 보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은 잘되는데 왜 나만이 그런가 하겠으나 정신기의 기운이 부족한 사주를 갖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물음에 답이 되겠지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무신(戊申)생 일자는 암록(暗綠:숨어 있는 복록)이라 하여 재물에 궁핍함이 없고 숨은 은덕이 있다고 했으며 생일지가 역마에 편재(偏財:내가 다스리는 오행)로 분주다망하고 천간에 무토(戊土)가 중중하여 건축 관련일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고철을 다루는 친구와 동업을 하기보다는 일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지내면서 철물을 다룰 수 있는 Knowhow를 익히고 건축 쪽 기술을 배우면서 가화만사성을 위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신경과민과 위장 질환을 유의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4일 (음 (윤) 9월 1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의사표현을 분명히 할 것. **60년생** 자녀가 희소식을 전한다. **72년생** 운기가 확 열렸으니 바늘구멍도 뚫어보자. **84년생** 어깨 펴고 활보할 경사가 생긴다.

49년생 배우자 덕에 웃는다. **61년생** 지나간 일로 화병을 만들지 말라. **73년생** 우연히 반가운 사람과 마주한다. **85년생** 기회가 왔을 때 먼저 고지를 선점하라.

50년생 감성 회복하니 모든 시름 싹~. **62년생** 자영업자는 복덩이가 굴러온다. **74년생** 아랫사람과 약속한 것은 보장하라. **86년생** 뜻을 이루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51년생 가벼운 외출이 유쾌하다. **63년생** 분위기를 파악한 후 할 말은 하라. **75년생** 배우자 화끈한 격려에 의욕이 넘친다. **87년생** 나만의 주력상품을 만들어라.

52년생 마음먹었으면 과감할 것. **64년생** 추진 중인 일은 가속도가 붙는다. **76년생** 부부간 속사정이 제각각이로구나. **88년생**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사랑도 깊어간다.

53년생 새로운 소일거리가 생긴다. **65년생**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 **77년생** 골치 아픈 일은 정리가 되어간다. **89년생** 처음한 일은 빈손이라도 만족하라.

42년생 움직이지 말고 두문불출할 것. **54년생** 최선을 다하면 기적도 일어난다. **66년생** 시간이 필요하니 독려하지 말라. **78년생** 막혔던 일은 돌파구 찾는다.

43년생 걱정한 일은 잘 해결된다. **55년생** 채찍보단 당근으로 사람 움직여라. **67년생** 협동으로 한 일은 화합의 꽃 피운다. **79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기니 기대하라.

44년생 부드러운 말로 향기 전파하라. **56년생** 믿고 싶은대로 믿는 배우자가 얄밉다. **68년생** 양보할 땐 쿨하게 하라. **80년생** 힘들어도 의리 지키면 나중에 좋다.

45년생 공들인 일은 효과 거둔다. **57년생** 공감이 가는 제안은 받아들여라. **69년생** 좋은 일을 하면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81년생** 거친 말로 구설수 오르지 않도록.

46년생 사람 소개는 신중할 것. **58년생** 친구 위로할 일이 갑자기 생긴다. **70년생** 처음은 고전하나 마지막엔 스마일~. **82년생**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감동이 있다.

47년생 머리 아픈 일은 해결된다. **59년생** 말썽의 소지가 있는 돈은 받지 말라. **71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3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야호~.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